

오전·오후반 도입 땀 매일 학교 간다

19일부터 등교수업 확대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방역인력 1만명 현장 추가 배치

클럽·콜라텍 등 출입 인원 제한
수도권 50인 이상 모임 자제 권고

정부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이 추석 연휴 기간을 거
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반
영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
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9월 27일~10월
10일) 신규 집단감염 건수는 직전 2주간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으며, 감염 재생
산지수도 1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
속하고 있어 재확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
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
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2021년도 대입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
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지만, 수도권에 한해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가 해제된다. 고위험시설은 클
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
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
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 학
원, 뷔페 등 10종이다. 특히 최근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
관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

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선
이용 인원이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
로 제한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제랑으
로 시간제 운영수칙 적용도 가능하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 스포
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수도권에 한해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보
면, 비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
상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되나 수도권에선
자체가 권고된다. 부득이하게 수도권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4㎡당 1명으
로 참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 시설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한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
수도권 종교시설은 대면예배가 허용되지
만, 인원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이
며 모임·식사가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경
우, 대면예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19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등교수업 확대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12일부터 18일까지는 준
비 기간으로 운영하며, 이후 수도권을 포
함한 전국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
화한다. 수도권 학교도 밀집도 기준을 지
키면 오전·오후 학년제 운영, 오전·오후반
도입,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매일 등교
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감염에 대처하
기 위해 기확보된 3만7000여 명 외에 추가
로 1만 명의 방역인력을 확보해 학교 현장
에 배치한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차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손현경 기자 son89@

기업형 유튜브 월수입 933만원 1인 창작자와 5배 차이

스태프나 시설을 갖춰 방송을 제
작·진행하는 '기업형 유튜브'의 1
인당 월평균 수입이 933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 홀로 방송 제작
·진행하는 '1인 유튜브'의 월평균
소득은 178만 원으로, '기업형 유
튜브'와의 차이가 5배 넘게 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
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
작자 면세사업자(이하 1인 유튜
버)'는 58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 금액은 총 12억4100만 원이
다. 1인 유튜버 1명당 월 소득이
178만 원인 셈이다. 실제 활동 인
원과 비교해 신고 인원이 미미하
지만, 과세당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종 업종코드를 신설한
이래 1인 유튜버의 수입 신고 자
료가 처음으로 확보·공개된 것이
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미디어 콘텐츠 창
작자' 코드 신설 후 유튜버 총
691명이 사업자로 등록했다. 근
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
디어 콘텐츠 창작자(기업형 유튜
버·과세사업자)'가 359명이다.

앞서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유튜
버들이 올해 초 신고한 작년 하반기
수입은 총 184억9000만 원이다. 1
인당 월평균 수입은 933만 원으로
작년 전체 귀속분으로 도출한 1인
유튜버 월평균 수입의 5배가 넘는
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한국, 작년 평균임금 4.2만달러... OECD 19위

평균 임금 증가율 3.6% '7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4만
23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 자료를 분석
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구매
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이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였다. 이는 2003년 3만2100달러
로 24위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순위다. 다만
OECD 회원국 평균 임금(4만8600달러)
과 비교해선 87%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 평균 임금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3.6%로 OECD 평균인 1.8%를 웃
돌았다. 순위로는 35개국 중 7위다. 우리
나라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2003년

OECD 평균 1.0%보다 높은 3.6%로 35개
국 중 7위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
한 2008년에는 OECD 평균인 -0.2%보다
낮은 -0.7%로 떨어져 순위도 29위로 내려
앉았다. 이후 2018년 3.2%로 다시
OECD 평균(1.0%)을 넘어섰다.

2003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 평균임금은 1만2000달러(31.8%) 늘었
다. 단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만4673달러→3만1682달러,
115.9%)에는 크게 못 미쳤다. 양 의원은
GDP 규모가 2003년 7027억 달러(10위)
에서 2019년 1조6422억 달러(8위)로 증가
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 성장보다 임금 규모
증가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 성장
치는 선망하고 있지만 임금 감소와 체납, 실
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상
위권인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질적 개선을 위
해 소득재분배, 성별 임금격차 축소,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연결보다 청결이 우선입니다

콘센트와 멀티탭에 쌓여있는 먼지를 방치하면
먼지를 통해 전류가 흘러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수시로 청소해주세요!



“3%를 경영권 위협은 기우”... 與 “투기세력 악용땀 수정”

‘재계 반발 쟁점’ 전문가 의견

21대 정기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이투데이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 쟁점을 짚어보고, 경쟁법 전문가들을 통해 재계의 입법 반대 주장이 합당한지 해부해봤다.

공정경제 3법 중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것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최대주주(상장사 해당)의 감사위원 선임의결권 제한이다. 특히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한 지분율 3%까지만 감사위원 선임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재계는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재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의 많은 이사가 가운데 1명 정도에 불과한 감사위원이 이사회 전체의 의사를 좌우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며 “현재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로만 감사위원으로 선출되는 폐해를 막고,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계 펀드 등이 3%를 이용해 지분을 분산, 서로 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한다면 그 기관투자자와 펀드의 속성에 따라 국내 기업이 영향받을 여지가 커진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헤지펀드 등 회사 외부세력

공정경제 3법 주요 쟁점 및 전문가 평가

쟁점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상장지분율 20% 일원화)	삼성 등 금융회사 소유한 6개 그룹 감독
재계 반발 이유	투기자본 경영권 침해 우려	소송 남발 우려	30조 원 이상 자금 부담 주고 투자·고용 저해	계열사 간 거래위축으로 기업 효율 저해	통제 시스템 이중 규제 해당
전문가 평가	감사위원 1명 선출 불교해 경영권 침해는 기우	법인 소 제기 절차 까다로워 남용 가능성 적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 부담 시간 안 해도 돼	정상적 내부거래 가능, 위법행위 안 하면 돼	기업 부담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필요



손영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공정경제 3법’ 관련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상법개정땀 투기자본 방어권 사라져” “1명에 불과...이사회 독립성 위해 필요”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차단’ 순기능 금융그룹감독법엔 향후 보완 주문

이 경영권 침해 목적으로 3%를 악용할 경우 3%를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재계의 반발 쟁점이다. 이 제도는 자회사의 이사가 불법을 저질러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에까지 손해를 끼칠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남발로 이어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피소 회사가 소송제기자에 대해 소송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소송제기자의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남용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장사 지배주

주 또는 경영진이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관행이 만연한 상황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 원장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모 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심하다. 삼성, 현대차 등 16개 비지주

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에 추후 지주회사 전환 시 30조 원 이상의 자금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투자 및 고용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항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주회사 체제의 단점인 경제력 집중을 포함한 부작용 우려가 대두되는 만큼 지주회사 체제의 본질에 맞도록 지분율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부담스럽다면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의 상장사 지분 기준을 비상장사처럼 20%로 일원

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재계의 불만이 크다. 계열사 간 거래를 위축시켜 기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만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합금융그룹 6곳(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제시스템의 이중 규제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손 교수는 “피감독 그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통제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14~15일 잇따라 민주당과 회동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저지를 위해 이번 주 총력전에 나선다. 14일과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또 건의안 제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저지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주관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민주당에선 유동수 의원(TF 위원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 오기형·홍성국·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 송기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경제단체에서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가 개최된다.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며, 민주당에선 홍익표 의원(민주연구원장), 오기형·홍성국·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경영계에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재계 싱크탱크가 나선다.

경제단체들은 두 번의 간담회를 마지막 공론화 장으로 보고,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법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 최대한 저지 공세를 퍼붓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공정경제 3법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된다. 일반 주주는 ‘당사자 지분 3%’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인 셈이다.

재계는 두 제도가 회사 경영의 핵심인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대 배당 확대 요구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7일 손영식 경총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에 있는 경영계 입장을 우선해 반영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지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이제 보험도 건강나이로 가입하세요!

건강나이만 젊다면 보험료 할인!

진심을품은종신보험

(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생필자금

나이가 많아도, 건강나이만 젊다면 보험료 할인!

건강나이보험료 적용특약 신청서

사망보장

* 건강나이(보험료 적용특약이전) 또는 보험자가 고지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 산술모델을 통하여 건강나이를 산정하고, 건강나이 적용시 주계약 계약재검일 기준으로 주계약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상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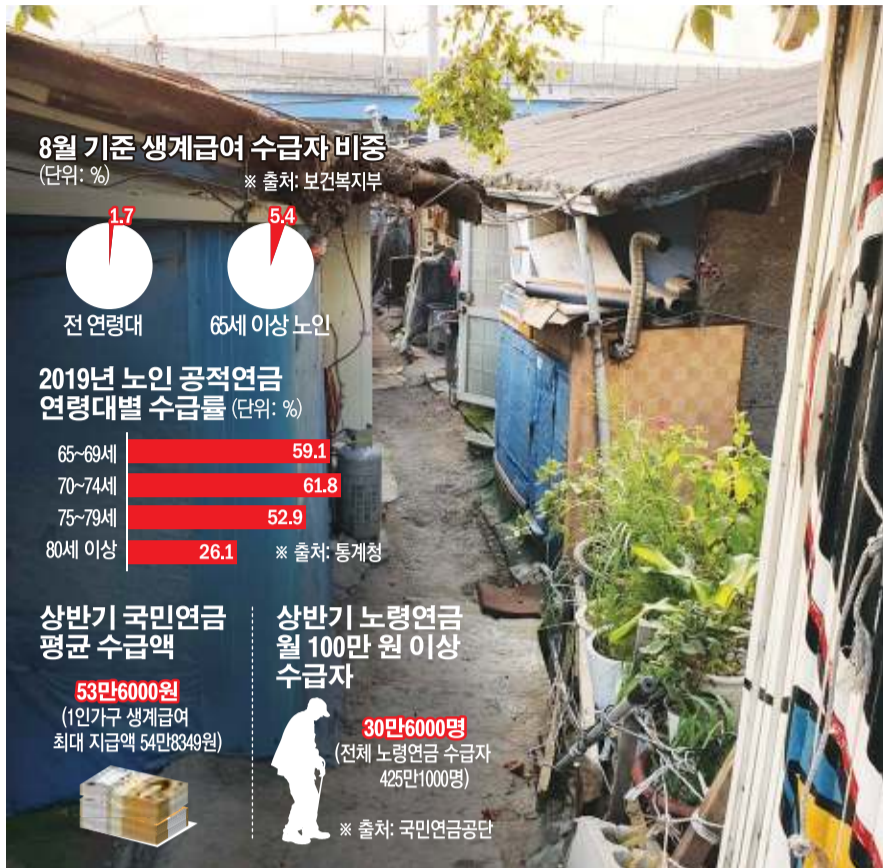
*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형 및 50%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원형(100%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원형(100%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일반/서명보험금]은 고액의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해금과 보모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모하고, 보모인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상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법의 심의일 2020-01473호(2020.05.14),

이러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 신한생명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 가난해져 있어”



박미순(75·가명) 할머니에겐 집 앞에 놓인 플라스틱 간이의자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일과였다. 사진은 박 할머니가 사는 서울 장지동 화훼마을 골목. 윤기쁨 기자 modest12@

〈글 쓰는 순서〉

1. 가난한 노후, 힘든 삶
2. 끊지 못한 가난의 굴레
3. 현 중장년층, 미래의 빈곤층
4. 이대로 두면 미래의 재앙
5. 겉도는 입법, 손놓은 정치
6. 노인빈곤, 지금부터 준비해야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김복자(69·여·가명) 씨는 고구마순 보따리를 챙겨 거리로 나갔다. 먹고살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 경기 성남시에서 홀로 사는 김 씨는 매일같이 거리로 나와 노점을 차리고 나물을 판다. 장사가 잘되는 건 아니다. 큼직하게 ‘3000원’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놨지만, 오가는 사람들은 고구마순 껍질을 벗기는 김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백수인 마흔 살 아들과 이혼한 딸도 형편이 어려워 김 씨를 돕진 못했다.

김 씨가 가난해진 건 계를러서도,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다. 젊어서 식당일 등을

희생의 대가 ‘가난’

사회·경제 성장 이바지했지만
늘 저임금·고용 불안 시달려
노인 절반 이상 노후 준비 안 돼
핵가족화로 자녀 부양 못받아

했고, 나이가 늘어난 나물을 팔았다. 노점 생활도 어느덧 10년째다. 그러면서 홀로 두 남매를 키웠다. 김 씨에게 가난은 ‘게으름의 대가’가 아닌 ‘희생의 대가’다.

생계급여 수급자인 이명환(74·가명·70대) 할아버지도 평생을 공사판에서 살았다. 일용직 신세를 한탄하며 결혼도 포기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이 할아버지의 몸은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망가졌다. 배우지 못했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고독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주민센터 직원이 추천해 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신청했다”며 “가난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어가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0 고령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후를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은 전체 노인의 48.6%에 불과했다. 그나마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8월 기준으로 평균 42만2000원이다. 월세와 쌀값을 내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빈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18~65세(11.8%)의 4배에 육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았다. 66세 이상도 연령대별로 상황이 다르다. 1960~1970년대 경제활동을 시작한 70대 이상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경제 호황기인 1980~1990년대에도 ‘질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했다. 수십년간 경제·사회 밑바닥에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지만, 늘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꿴다.

특히 70대 이상은 부모와 자녀를 함께 부양했지만, 1990년대 이후 핵가족화로 정작 자신들은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했다. 통계청의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전체 가구 중 3대가 모여 사는 가구의 비중은 2000년 6.8%에서 2018년 3.7%로 반토막 났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일만 했는데, 돈이란 게 내겐 모래알처럼 들어오는 순간 흩어지더라”며 “결혼도, 자식도 포기하며 일생을 공사판에 바친 인생이 덧없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윤기쁨 기자@modest12

www.kwnews.co.kr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보는 江原日報 X NAVER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강원도의 이익이 강원일보-네이버를 통해 극대화 됩니다.

江原日報社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생계급여가 유일한 소득 이마저도 약값으로 다 써

하루 일과라곤 사람 구경뿐
오직 바라는 건 자녀 행복

9월 28일 오후, 이른 추캉스(추석+바캉스)를 떠나는 인파로 김포국제공항이 붐비던 날이었다. 추석 연휴가 이들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미순(75·가명) 할머니의 표정에는 그날만 가득했다. 늘 그랬듯 집 앞에 놓인 플라스틱 간이의자에 앉아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박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이곳 장지동 화훼마을에 온 지도 20년이 넘었다. 장지동 화훼마을은 1982년 잠실 철거민들이 옮겨온 판자촌이다. 젊을 땐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지만, 종일 쭈그러 지내다 보니 나이가 들어 허리가 안 좋아졌다. 얼마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도 받았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은 더 팍팍해졌다. 매달 정부에서 받는 생계급여는 대부분 약값으로 나간다. 사람 구경은 박 할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취미다. 행복의 의미는 잊은 지 오래다. 건강도 건강이거니와 가까운 휴양지에 가을바람 쐬러 나가려 해도 돈이 없다.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욕심도 없다.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에 있어봤자 쓸 줄 모른다. 바라는 게 있다면 지방에 사는 아들의 행복이다. 가난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 박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돈이 생긴다면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어느새 할머니의 눈가는 촉촉이 젖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가난은 흔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박 할머니와 같은 노인(65세 이상)이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5.4%로 65세 미만(1.7%)의 3배다. 화훼마을엔 박 할머니처럼 생계급여가 유일한 소득인 노인들이 모여 산다. 대부분 주머니가 넉넉지 않아 집 근처에서 여가를 보낸다.

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다른 할머니들이 물었다.

박 할머니와 동갑내기인 김명자(74·가명)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몸져누운 남편을 수십 년째 간병 중이다. 젊을 땐 아픈 남편을 대신해 보도블록을 깔고, 장사도 했다. 남은 건 없다. 변변한 월셋집 구할 형편도 안 돼 판자촌에서 지낸 지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렇다고 보도블록 일을 물려받은 아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다. 김 할머니는 “일과라는 게 없다. 그냥 동네 돌아다니다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라며 “매일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했다.

화훼마을 노인들의 삶은 단조롭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벅고 고단하다. 꽃놀이, 단풍놀이는 엄두도 못 낸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이어서다. 반복되는 삶에서 오는 건 ‘우울’뿐이다.

한국인의 ‘행복도’를 연구하고 있는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들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건강, 가족과 관계, 친구들과 관계 등이라고 한다면,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행복도와 연결되는 다른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윤기쁨 기자@modest12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가난→단절→고립' 악순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비가 줄고, 외부활동도 준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서서히 인간관계도 끊어진다. 남은 건 고립감과 외로움, 삶의 만족도 저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와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후를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은 전체 노인의 48.6%였다. 특히 여자는 이 응답이 39.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은 노인 빈곤을 상승으로 이어진다. 2018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다. 지난해 60세 이상의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는 각각 10.5%, 11.9%였다. 성인 전체와 비교하면 소득 만족도는 3.6%포인트(P), 소비생활 만족도는 4.9%P 낮았다.

미흡한 노후 준비로 인한 빈곤은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노인의 인간관계 만족도는 44.6%로 13세 이상 전체 인구(51.4%) 대비 6.8%P 낮았고,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도 21.8%로 6.5%P 낮았다. 사회관계망 측면에선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33.4%에 불과했다. 소득 부족, 건강 악화에 더한 사회적 고립은 곧 삶의 만족도 하락을 의미한다.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전 연령대는 39.1%였는데, 노인층에선 25%에 불과했다. 전

평생 생산직·일용직 일하다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 못해

10명 중 1명 소득·소비 만족

건강까지 악화, 인간관계 단절

년보단 4.9%P 하락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해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과제(김성아·정해식, 보건복지포럼 제 270호)' 보고서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한 '곤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다"며 "국민의 만족스러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연령대를 고려한 생활 전반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배경 중 하나는 현재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했던 1970년대 전후 낮은 근로조건이다. 전대 일의 분신(1970년)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당시 대다수 생산직·건설직 근로자는 성장을 앞세운 병폐적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부흥기인 1980~1990년대엔 경력관리 실패로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했다. 보사연이 6월 발간한 '노인 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이주미·김태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 당시 근로형태는 현재 빈곤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현재 가난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당



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중장년층을 그대로 둘 경우 이들이 미래의 가난한 노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미래 노인 빈곤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착, 기업 규모별 복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 부담이 큰 비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한 경우 돌봄기능 강화, 정서 지원, 특히 가족구조 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노인 공적연금 수급률 51% 기초연금 생계비용으로 부족

비교적 뒤늦게 도입된 복지정책들도 노인(65세 이상) 빈곤의 배경 중 하나다. 경제활동 당시 착취적 저임금으로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빈곤층이 됐다.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할 수단이 없어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이 됐다.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5년(특례노령연금, 일반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수급률은 50.9%, 80세 이상은 26.1%에 불과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도 수급액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상반기 30만6000명(총 수급자 425만1000명)을 기록했다. 달리 말하면 나머지 345만5000명은 월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의미다. 수급자들의 가입 기간이 늘면서 평균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3만6000원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1인 가구 54만8349원) 수준보다 낮다.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올해

44%, 2028년 40%)을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40년 돼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도입된 지 33년밖에 안 돼 소득대체율과 연금액 모두 낮은 수준이다.

다른 노후소득 보장제도들도 최근야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2005년, 주택연금은 2007년 시행됐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은 아직도 노후소득 보장제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운용수익률이 은행 정기적금 수준밖에 안 돼 가입자의 98%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택하고 있고, 주택연금은 집값 오름세 탓에 지금 가입하면 '손해'란 인식이 강하다. 더욱이 두 제도는 수혜 대상이 퇴직연금 가입자와 유주택자로, 빈곤층은 사실상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

결국, 경제활동 시기 저임금과 제도의 미비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노인들은 재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이 과도기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표적 제도다. 단 현재의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가 부족해 국민층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0대 이상은 현재 중장년층보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다"며 "당분간은 국가가 노인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재정일자리를 공급하고, 그조차 어려운 계층에는 복지지출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수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총괄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외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편안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실사필 제9-62호(2019.02.28)

〈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 ICBM 과시한 김정은, 美 빼고 南에 화해 메시지

핵·미국 언급 대신 방위수단 강조
차기 정부와 협상력 강화 전략
“북남 다시 손잡길” 유화 제스처
美 “실망...비핵화 협상 나서야”



김정은(오른쪽 큰 사진 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10일 오전 0시부터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 위-아래는 열병식 불꽃놀이와 발사관 6개를 탑재한 '6연장 초대형 방사포'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일 심야 열병식을 열고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한 것은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에 맞춰 대응하기 위한 상황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조선중앙TV가 녹화중계한 10일 열병식에 따르면 마지막 무렵 11축 22륜(바퀴 22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신형 ICBM이 등장했다. 2017년 발사된 ICBM '화성 15형'보다 직경과 길이가 길어져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두가 여러 개로 나뉘지만 요격이 쉽지 않다.

이에 미국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하며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또 “북한

이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발언한 미 행정부 한 고위 관리의 말도 보도했다.

북한은 또 신형 SLBM '북극성 4형' 같은 새 전술-전략무기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ICBM과 SLBM을 '미국 본토

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도발보다 과시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북한은 남측을 향해 코로나19 이후 “손 맞잡길 기원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을 향해선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강조할 뿐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응징할 것”이라며 전략무기 개발을 정당화했다. 또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 만큼 발전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북한은 5월 24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앙군사위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번 연설에서는 ‘전쟁 억제력’으로 표현 수위를 낮춘 셈이다. 미 대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미 도발을 자제하면서도 신형 무기를 공개해 향후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연설 도중 눈물을 흘리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김 위원장이 연설하던 중 재난을 이겨내자고 말하며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 또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든가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군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으로 악화된 남측 민심을 의식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진정 국면 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靑 “남북 합의사항 지켜야...다시 두손 맞잡는 날 기대”

송영길 “코로나 이후 남북협력”
태영호 “北 내부 힘들다는 것”

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보건의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에 대해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송 의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무기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두고 자신들의 무력이 결코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객관적으로는 미국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에 노출된 것”이라고 분

석했다. 이어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간(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와 선제적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라고도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걸 보여주며, 그

만큼 북한 내부가 힘들다는 것”이라며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무마시키고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유화 메시지도 나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ICBM을 그대로 발사할 수 있는 차량과 확장된 미사일 몸체와 탄두 부분을 공개, 미국을 향한 발사 시간 단축과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정면 돌파 전략이 변하지 않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며, 내부 결속도 다지고 미국 대선 후 시작될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셈이 깔렸다”고 판단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굿네이버스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오픈뱅킹을 더 편하게 KB 스타뱅킹



한번 더 엄지척



오픈뱅킹도 역시
KB스타뱅킹



모든 은행 조회/이체
KB스타뱅킹 하나로 더 편하게!
은행 간 이체 수수료 0원



바로 충전
화면 이동 없이 더 편하게!
거래 중에도 필요한 잔액을 바로 충전



잔액 모으기
예약일에 맞춰 더 편하게!
최대 5개 계좌에서 예약으로 한번에 이체

*오픈뱅킹은 KB국민은행을 포함하여 총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편리한 금융서비스이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한도는 오픈뱅킹 전 기관 합산 1일 1천만원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 직원, 스마트 상담부(1588-9999)로 문의 또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309호(2020.07.08), 광고물 유효기한 2021.12.31까지

*b KB 국민은행

OECD 전기료 인상 권고... 한전 '연료비 연동제' 힘 실리나

화석연료 비율 80%... “저렴한 전기요금 재생에너지 확대 막아” 연동제 댄 안정적 수익구조 유지... 연내 요금체계 개편안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 개선을 권고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 전력에 검토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OECD는 8일 한국경제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을 물론 향후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상반기 발표한 ‘2018년 가정용 전기요금’에 따르면 33개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10.5 달러/MWh로 멕시코(62.9달러/MWh), 터키(103.9달러/MWh)에 이어 세 번째로 저렴하다. 이는 가장 비싼 덴

마크(358.0달러/MWh)에 비해 3분 1도 안 되는 가격이며, 일본(239.0달러/MWh)이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오일,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해 조사 대상 36개국 중 꼴찌라고 OECD는 꼬집었다. 반면 1차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연료 비율은 80%였고, 이 중 31%를 석탄이 차지했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보다 석탄 비중이 높은 나라는 36개 조사대상국 중 에스토니아(71%), 폴란드(48%), 체코(35%), 호주(35%) 4개국뿐이다.

OECD는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조기 사망률을 큰 폭으로 높이고 아동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국내에 오염원이 있는 미세먼지를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35%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WHO 기준 아래로 낮추려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OECD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저해하고, 미세먼지 우려를 키우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 한전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명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로 OECD 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도입 중이다. 연동제가 도입되면 유가가 오를 때는 전기요금을 올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요금을 내려 한전으로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 유가가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다 보니 한전 실적도 날뛴기를 해왔다. 한전은 연동제 도입 가능성 포함한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K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무차별 특허소송 일어날까 독일식 사실조사제도... 영업비밀 보호

▶팩트체크

소송 전 합의 유도 위해 도입 소부장 기업 “소송 남발” 우려

‘K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엇갈린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업계는 특허 선진국 기업이 특허권자에 유리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악용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의 주장처럼 K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아직은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일까?

특허청은 특허권 보호와 특허침해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이른바 ‘K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스커버리는 미국 특허 분쟁 제도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수집·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증거를 주고받다 보면 침해 여부가 명확해져 소송 이전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는 이 제도가 소송 남발로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우위를 앞세운 외국 기업이 특허권이 약한 한국 기업에 특허 소송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소부장 수준을 봤을 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K 디스커버리가 미국식 디스커버리가 아닌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로써 압수수색과 다르고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 사실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민사구제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중립적인 전문가가 조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원량이 많은 외국기업이라도 △ 침해 가능성 △ 조사 필요성 △ 상대방의 부담 정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전문가 사실조사가 가능해 실제 소송 남발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계, 업종별 단체, 법조계, 소부장 기업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화천서 돼지열병 발생... 살처분 진행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9일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11일 해당 양돈 농가에서 2.1km 떨어진 한 농장에서도 ASF가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직 통계에 숨은 女 무기계약직

교육부 산하기관 여성 정규직 중 최대 80%가 무기계약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남녀성비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일반정규직에는 남성, 무기계약직에는 여성이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을 제외한 10개 기관 모두 정규직 성비는 평균적으로 남성 50~60%, 여성 40% 정도의 균형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뜯어보면 정규직 산정에 포함되는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성별 불균형이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살펴보면, 정규직 전체 비중이 여성 58%, 남성 41%로 나뉘어, 여성 정규직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맹점은 무기계약직의 비중이다. 여성 전체 정규직 87.25명 중에 무기계약직 인원은 52.75명으로, 60.4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의 경우, 전체 정규직 62.5명 중에 무기계약직은 15명으로 24%에 머문다. 여성보다 남성의 정규직의 수가 적어 보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에 준한 무기계약

직이 24%라는 대목에서 여성의 무기계약직 숫자가 남성보다 약 2.5배가량 많다. 무기계약직 중 80%에 가까운 절대 다수가 여성 무기계약직이다.

나머지 기관 역시 절대 성비는 각각 다르지만, 여성 정규직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인 실정은 마찬가지다.

남녀 성비로 보면, 한국고전번역원의 경우 정규직 남녀 성비는 6.6:3.3이지만 일반 정규직은 7.4:2.6 무기계약직은 3.8:6.3으로 큰 불균형을 보였다.

9월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약 20%로 조사됐다.

높은 비율의 무기계약직 여성과 일반정규직 남성은 성차별채용과 남녀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열 곳에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된 인원은 지난 5년간 총 151명이다.

이탄희 의원은 “무기계약직에서 보여주는 남녀 성비차이는 공공기관이 그동안 여성 대표성 제고에 소홀해 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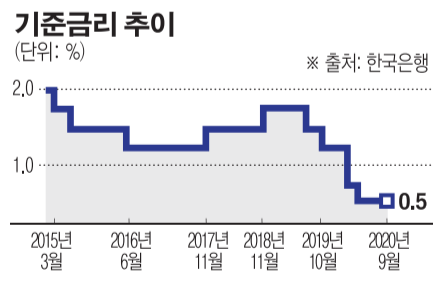
채권전문가 “내년까지 기준금리 동결” 전망

성장 부진에 저금리 유지 관측 자산 부동산 풀림 인하 어려워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내년까지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조기에 실시하지 혹은 내년에도 정례화할지 등 정도가 관심사일 것으로 봤다. 최근 수출과 소비자물가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에 대한 판단도 주목해볼 변수로 꼽혔다.

11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원이 만장일치 동결을 예측했다. 또 짧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는 내후년인 2022년까지 기준금리 동결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자산의 부동산시장 풀림에 따른 금융불균형 문제가 부각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부동산 억제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백운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기준금리 조정이 있진 않을 것이다. 완화적 기조를 가져가겠지만 이미 기준금리는 실효한 수준에 다와 있다. 최근 부동산 이슈를 감안하면 추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11월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코앞에 와있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꼽혔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통화정책은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재선시 재정확대를 지원키 위해 마이너스금리와 달러화 약세로 정책방향을 가져갈 것인 반면, 조 바이든이 되면 경기부양책은 같으나 연준(Fed) 독립성을 보장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국고채 단순매입과 경기판단에 대해 어떤 신호를 줄지가 관심사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우혜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9월부터 (정례적으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시작했다.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은 없는지, 매입대상은 뭐가 될지 등에 대한 관심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수출과 물가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최근 지표개선으로 국내 경제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조금은 긍정적인 톤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최근 한은이 디지털화폐 시험 테스트(파일럿)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변수로 꼽혔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비전통적 수단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도 단순매입 확대 등을 통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 관측이다.

한편, 한은은 14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0.50%로 결정해, 기준금리를 역대최저수준까지 끌어내린 바 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정의당 새 대표 김중철 선출

정의당이 10일 새 대표에 김중철(왼쪽) 후보를 선출했다. 김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5·6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당 깃발을 흔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염위험 없다’지만... 트럼프, 침 튀기며 대중연설

**확진 이후 첫 대규모 행사 강행
흑인·라틴계 모아놓고 野 맹공
바이든 “노 마스크... 무모”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공개 행사에 나섰다. 확진 사실을 공개한 지 9일 만으로, 거둬들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경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지지자들을 초청, 공개 행사를 열어 ‘법과 질서’를 주제로 연설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백악관 발코니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기분이 매우 좋다”고 운을 폈다. 이날 행사는 선거 행사가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CNN은 백악관 행사로 위장한 선거 유세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전국적인 법 집행 반대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바이든은 911 운영 예산을 삭감하고 경찰의 화기, 자금, 권한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자신의 주된 지지 기반인 백인층 이외의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중 가운데 ‘블렉시트(BLEXIT)’ 구성원을 비롯한 흑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블렉시트는 흑인의 민주당 탈당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좌파를 거부한다”면서 “민주당은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심 지역을 통치해왔지만, 재앙과 가난, 어려움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선거 유세에 가까운 행사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진행한 점은 도마에 올랐다. 2주 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식이 코로나19 슈퍼 전파 행사로 지목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열 명 이상의 참모진과 공화당 의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최소 5명은 로즈가든 행사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청중들 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손 리 백악관 주치의는 이날 오후 “트럼프가 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며 “진단 결과는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현재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나 음성 중 어느 쪽이 나오는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중단 지시를 반복하며 제한한 1조8000억 달러(약 2074조 원)의 경기부양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퇴짜를 맞은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1보 전진, 2보 후퇴’라면서 거부했다. 그는 “대통령이 더 큰 규모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돈을 늘리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친정인 공화당도 “트럼프의 부양책은 오바마케어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음 달 3일 열리는 대선 이전 경기부양책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 기대감이 식어가는 분위기다.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에 빠졌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발코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연설을 들으며 환호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발코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연설을 들으며 환호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국제물류비 3배 경충... 美 연말 경기회복 ‘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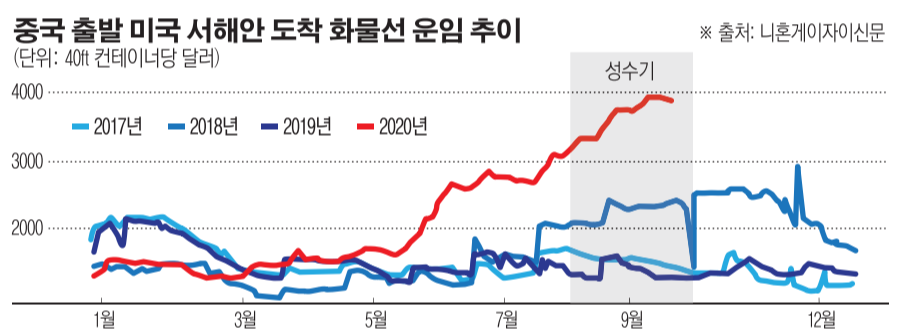
운임료 상승에 재고도 부족... ‘쇼핑 대목 놓칠라’ 글로벌 업계 비상

미국이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물류 대란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 물류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연말 미국의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전 세계 해운·운송의 감소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치솟고 미국의 상품재고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소비를 견인하는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이 물류 대란으로 힘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계 경제회복이 둔화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닛케이에는 일본 해운 관계자 말을 인용해 “평소라면 중국-미국 간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이 진정돼야 할 때이지만 올해의 경우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정보제공업체 프레이토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 서해안 항만에 도착하는 화물 운임은 9월 말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3900달러(약 450만 원)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수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운임 상승은 이번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12월 크리스마스까지 미국



쇼핑 시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7월부터 10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전, 가구와 장난감 등의 수출 수요가 활발해지긴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물류 작업이 더딘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소매기업의 상품재고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재고 잔액은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며 전체 소매 매출 대비 재고 잔액 역시 1.23배로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운항의 정상적인 회복은 아직 더디다. 지난달 중국-미국간 운항편은 당초 계획보다 5% 줄어든 감편이 이어졌다. 해운업계가 가파른 증편에 따른 운임 하락과 소비시즌 이후 수송량 감소에 따른 문제 등을 경계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통상 항공화물의 경우 여객기 화물칸에 실리는데, 여객기 운항 또한 감소하면서 운임이 계속 오르게 된 것이다. 홍콩발 북미행 운임료는 현재 1kg당 43홍콩달러(약 6400원)로, 7월보다 20% 이상 비싸졌다. 닛케이에는 당장 애플의 신제품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5의 발매 등으로 단기 수송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항공 증편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연말 쇼핑시즌에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외출 제한 등을 강요당했던 소비자 구매의욕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현실화하려면 물류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닛케이에는 강조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SPAC이 절반... 美 ‘IPO 거품론’

입증된 실적 대신 비전문 제시... ‘묻지마 투자’ 경고등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에 버블 경고 등이 켜졌다.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 상당수가 특별한 사업 실체가 없이 인수·합병(M&A)에 초점을 맞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에 집중되면서 IPO 시장 투자 열기가 너무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1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7-9월 미국 IPO 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630억 달러(약 73조 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배 수준으로, 분기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절반은 스�팩 상장 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스팩을 통한 상장은 일반 IPO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회의감에 비롯됐다. 일반 IPO

의 경우 투자은행을 통해 투자가격이 결정되는데, 투자은행은 상장 잔액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공모가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들은 낮게 책정된 가격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면서 일반 IPO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팩 상장은 일반 IPO보다 상장이 수월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자연스레 신청 규모도 늘어나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로 금리 정책 등으로 자금이 넘쳐난 것이 IPO 시장의 현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에는 진단했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곳을 찾던 이들이 IPO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스�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스�팩 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 초 니콜라와 드래프트킹스 같은 회사들이 스�팩을 통해 상장한 후 주가가 오르면서 스�팩 IPO 열기가 뜨거워졌다. 그러나 6월 스�팩 상장을 한 니콜라가 최근 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스�팩 상장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팩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수익을 내기도 전에 상장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입증된 실적보다는 비전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니콜라로부터 얻은 큰 교훈이라면 준비가 되기도 전에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회사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中 정부, 5만 명에 200위안씩 지급 ‘디지털 위안’ 대중화 실험 나섰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실험에 착수하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최초 국가’ 지위에 바짝 다가섰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사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 실험에 본격 나섰다.

인민은행은 광둥성 선전시 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추첨을 통해 1인당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총 1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중국 주요 4개 은행을 통해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당첨 결과는 당일 발표되고 18일까지 선전 뒤후구 3389개 상업시설에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위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 중국은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캐시리스 사회’ 추진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정도에 대해 소문만 무성하던 디지털 위안이 일반인에 공급돼 첫 시험에 들어가는 만큼 디지털 화폐 공식 발행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고 쿤 중국 시탁뱅크인태셔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 화폐 공급으로 일정 정도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더 중요한 의미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본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험을 통해 금융당국은 디지털 화폐 사용처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부양 및 산업 생산 지원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 실험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디지털 화폐를 정식 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같은 중국의 속도전에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인민은행은 “글로벌 달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처음으로 발행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 위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의도가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플렉스 양바벨파이낸스 창립자는 “기술만으로 세계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 화폐는 기술이 아닌 정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보험사 ‘수사권 남용’ 현실화...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법률적 한계’ 국감 쟁점으로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률적 한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법 제정 당시 우려됐던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으로 억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정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을 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억울한 소비자 양산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실은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무직 신민우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사기특별법이라는 명분으로 보험가입자를 과도하게 사기범으로 치부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 2016년, ‘허위 진단서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으로 1년 8개월을 복역한 전과자다.

‘특전사 보험사기’는 경찰-보험사-금융감독원의 공조로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한 사건이다. 특전사였던 신 씨는 선배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을 들

억울한 피해자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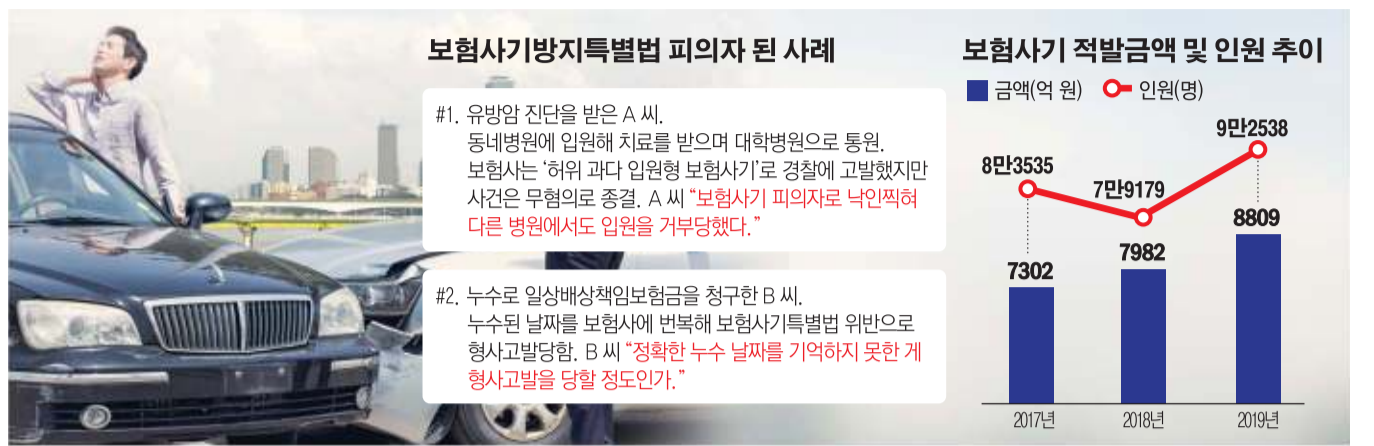
‘특전사 보험사기’ 연루된 신 씨 1년 8개월 복역 전과자로 낙인 복역 이후 무혐의 통지서 받아

警-보험사 공조 과잉 수사

법조계 “증거 없어 자백 필요한데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신 씨 유죄 변호사 도움받은 피고발인 무죄”

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신 씨는 군 생활 중 부상으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수령했다. 신 씨는 “실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선배 특전사의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진단과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를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수사권을 남용해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전역 후 신 씨는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게 연락을 받아 “보험금을 고의로 타먹었으니, 교도소에 가야 한다”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조사도 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국회에서 2년 반 동안 계류되다 2016년 3월 통과된 후 같은 해 9월 30일 시행됐다. 이 법은 보험사기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압적으로 이뤄져 결국엔 원하는 대로 조서 작성됐다는 것이 신 씨의 입장이다.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신 씨는 허위 자백을 통해 기소됐지만, 변호인의 보호를 받은 다른 특전사 경우, 같은 사건인데도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장해진단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기본적 쟁점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재수 의원실 측은 신 씨의 문제를 단순 ‘사례’가 아닌 특별법이 낳은 ‘제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입법될 때부터 보험사에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해 보험사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컸다.

나아가 국감에선 경찰과 보험사의 공조가 낳은 ‘강압수사’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복역을 마친 신 씨에게 검찰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통지서를 송부했으며, 브로커 역할을 해 기소된 이 씨 역시 신 씨와 같은 사례”라고 했다. 결국, 보험사기특별법을 등에 업은 경찰과

보험사의 공조가 만들어낸 과잉 수사였다는 지적이다.

당시 특전사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고도 김용환 변호사는 신 씨의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이 기획수사를 해서 실적을 내야 했고, 강압수사가 명백했다”며 “증거 없이 자백으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고소인의 자백이 필요했고, 같은 사건인데 강압수사로 자백한 신 씨는 유죄를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고발인들은 무죄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에 대해 KB손보 측은 “강압적인 조사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강압적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민간회사 물건 파는 행위인데 보험사에 준사법권 부여한 꼴”

“법 없이 사기범 못 잡는 것 아냐 기존 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합당하게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본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험은 소비자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약관대로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사기인데, 지금의 법은 보험계약자만 책임을 묻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법안의 구조 자체부터 모순적인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때는 장벽을 높게 쌓지 않다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는 까다롭게 본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형사적 절차를 소비자들에게 씌워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목적이 다분하다”라며 “차라리 보험 사기 의심자를 거르기 위해선 보험 가입 당시부터 경찰과 변호사를 대동시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 힘이 약하니까, 소비자를 옥죄 수 있는 틀을 갖기를 보험사들이 원한다”라며 “국회의원이 이름 걸고 발의했지만, 배후는 보험사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민영보험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보험이라고 일반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보험만을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건 모순이다”라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jinsan@·사진제공 뉴시스

〈작년 기준〉

보험사기 9.2만명 적발·피해액 8800억 ‘최대’

실효성 없었던 특별법
2016년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있었다. 당시 입법안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0년 3746억 원에서 2014년 5997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것으로 봤다. 또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 보험사기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고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형벌을 강화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현행 형법에는 사기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이 법을 통해 보험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넣은 이유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4년이 넘는 시점에서 형량 강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전히 보험사기는 줄지 않

보험금 누수 방지 제 역할 못해 계약자 권익 보호 내용도 없어 특별법 개정안 관련 조항 삽입
있고, 보험금 누수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기범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대의도 없는 입법이었던 셈이다.

특히 보험업계 종사자나 병의원, 정비업체 등이 공모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요소로도 지적된다.

따라서 지금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계약자’의 일탈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사례는 이 법이 그들 망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민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개정 입법안은 “최근 보험설계사 및 병의원·정비업체 관계자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전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해 보험사기를 더욱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적었다.

특이한 건 해당 개정안에 보험계약자의 권익 침해해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금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계약자의 권익 보호는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등해야 할 보험금 청구자와 지급 간의 힘의 불균형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되레 보험사에만 강한 무기를 쥐어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 보험회사가 ‘준사법권’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인은 사기범으로 몰려서 검찰 조사, 법원 재판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라며 “형사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계약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옵티머스 사태 키운 금감원

▶1면서 계속

트러스트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금 흐름을 포함해 자산, 자본, 부채에 따른 재무상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올 초 트러스트올과 옵티머스자산운용 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사전에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예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공시심사실에서 공시를 잘 올렸는지 유무는 심사하고 있지만 공시 내용이나 회계 감사보고서 내용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한다”면서 “공시 내용이 불공정거래와 엮였거나 지분율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조사팀이 따로 조사하지만 회계 법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시는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러스트올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렌탈료를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대표 측은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WON 하는대로 돈보이는 금융생활

쉽고 편리한 금융생활 돈보기, 우리WON뱅킹



WON하는대로
우리WON뱅킹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오픈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8.12 준법감시인-1840 심의필(유효기간 : 2021.08.31)

인프라코어 파는 두산, 새 캐시카우는 퓨얼셀·밥캣



두산퓨얼셀 수소연료전지(위)와 두산밥캣 소형 건설장비 '로더'.

**친환경 에너지기업 변신 과도기
퓨얼셀, 수소연료전지 수주 확대
밥캣 소형 건설장비 판매 호조세
“배당 수익, 두산重으로 흘러갈것”**

두산그룹이 '캐시카우'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면서 차기 먹거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린뉴딜'로 주목받는 두산퓨얼셀과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자회사 두산밥캣 등이 거론된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전은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전략적투자자(SI)와 MBK파트너스,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등 사모펀드(PEF)가 참여하면서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코어의 새 주인 찾기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두산그룹은 수익창출원을 잃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건설기계 1위 업체로 지난해 840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알짜' 계열사다.

두산퓨얼셀은 두산그룹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그린뉴딜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퓨얼셀은 국내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료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신규 수주와 실적 성장도 예상된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수소 발전 허가는 총 4.4GW(기가 와트) 발급됐으며 특히 4-7월 신청된 최근 발급 허가만 약 1GW로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영업이익이 인프라코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퓨얼셀의 상반기

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1301억 원, 영업이익 79억 원이다. 인프라코어는 상반기 별도기준 매출액 1조4257억 원, 영업이익 817억 원을 기록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9849억 원, 영업이익 3352억 원이다.

두산밥캣은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수익창출원 역할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밥캣은 인프라코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코어를 매각해 자구안을 실행해도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는 현재 바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결국, 당장 캐시카우가 될 자회사는 두산밥캣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산밥캣은 그동안 꾸준히 배당을 하며 인프라코어에 현금을 공급해왔다. 지난해 배당금은 1202억 원이었다. 인프라코

어 매각이 진행 중인 올해에는 중간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2018년, 2019년에는 중간배당도 시행했다. 그동안 밥캣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인프라코어가 매각되면서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두산중공업으로 배당수익이 흘러갈 전망이다.

두산밥캣은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다.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6억8009만 달러, 영업이익 1억2518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3분기 실적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북미와 유럽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소규모 농장과 정원 등을 가꾸는 데 필요한 농업·조경용 소형장비(GME) 판매 호조세가 3분기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혜 기자 winjh@

롯데케미칼, 실적 회복 시동...美 허리케인 피해 공장 재가동

**‘화재’ 대산공장도 연내 정상화
위생재·가전 수요 확대에 대응**

올해 국내외 공장 가동 중단 등 겹악재를 겪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실적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생산이 중단됐던 미국, 대산 공장이 차례로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화학 사업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멈췄던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시에 있는 에탄크래커(ECC)·에틸렌글리콜(EG) 공장 가동을 최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멈췄던 미국 공장이 가동을 다시 시

작했다"고 말했다.

이 공장은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31억 달러(약 3조7000억 원)를 투자해 세웠고, 연 100만 톤(t)의 에틸렌과 70만 톤의 EG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8월 말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역대 허리케인 상륙 당시 생산 공장 가동 중지를 지시하면서 이 공장들도 생산을 멈췄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이후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업체들이 피해를 봐 섰다운(가동중단)이 지속됐다.

롯데케미칼은 예상치 못한 한 달간의 가동 중단으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3분기 들어 세일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ECC의 수익성이 개선돼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회손실이 발생하며 마

격을 받았다.

4분기부터는 미국 ECC·EG 공장의 생산 재개는 물론, 올해 3월 화재로 가동 중단된 대산 공장도 다시 설비를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케미칼은 폭발했던 대산 공장의 응축기를 9월 말 설치하고, 이달부터 파이프 라인 연결을 통해 시가동(뿔뜨임)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험 가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2월부터는 대산 공장 역시 완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공장 섰다운이라는 악재를 모두 털어낸 후 롯데케미칼은 사업 정상화에 따라 실적이 가파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위생재,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화학제품 호조세를 오롯이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나이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 등 제품은 위생재,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올레핀 부문에서만 약 4000억 원 이상의 실적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에 따른 2000억 원 규모의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산 HPC 및 롯데GS화학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화학단지 완공 등이 예정돼 있어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SK이노, 페플라스틱으로 솔벤트 제조 성공

**그룹 차원 ‘친환경’ 화학사업 강화
최고급 수준 윤활유 원료도 개발**

SK이노베이션은 페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해 얻은 열분해유로 화학제품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SK그룹 차원의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그린 밸런스 전략'에 따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제조한 솔벤트는 파라핀 함량이 높고 냄새도 적어, 기존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활유 역시 '그룹-3 Plus'급 최고급 기유를 만들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솔벤트는 세정제, 페인트 희석제, 화학 공정 용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윤활유는 엔진오일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 윤활유를 만드는 주원료이자,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재료다.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페플라스틱 이슈 등 환경 문제에 직면한 화학 비즈니스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로 변화시켜, ESG 관점에서 차별화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SK종합화학은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 화학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 연구원들이 페플라스틱(왼쪽부터), 페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뽑아낸 열분해유, 열분해유로 만든 솔벤트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나서는 것은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ESG란 기업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ornem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뜻한다.

최근 기업 경영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ESG 지수를 평가해 투자하는 '책임투자'가 대세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ESG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장은 "열분해유로 다양한 친환경, 고기능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폐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원료로 다양한 재활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LG 시그니처 올레드 R’ 티저영상 캡처.

LG ‘롤러블’ TV 예상가 1억 넘어

티저 공개...이달 말 출시

세계 최초의 롤러블(rollable·말리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이 본격 출시된다. LG전자는 내주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개최한 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달 말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롤러블 TV 출시를 예고하는 새로운 예고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17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장엄한 음악과 ‘ROLLING SOON(롤링 soon),’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이라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가 포함됐다.

LG전자는 앞서 지난달 말에는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 전용 홈페이지를 열었고, VVIP 고객 대상으로 ‘롤러블 TV 프라이빗 초청행사’ 초청장을 발송했다.

LG전자는 초청 고객 중 예약자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R’ 공개 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초청행사 예약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해당 행사를 통해 사전 판매를 진행한 후 이달 말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본 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시정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 넣을 수 있다.

대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정도로 초고가여서 대중적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혁신 기술과 희소성을 앞세워 국내를 비롯한 해외 부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우리 기자 we1228@



현대차 ‘더 뉴 i30N’ 내년 초 유럽 출시

8단 DCT 장착 주행성능 강화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 유럽에 ‘더 뉴 i30 N’을 선보이며 고성능 브랜드 N 판매 확대에 나선다. 11일 현대차 유럽법인은 최근 ‘더 뉴 i30 N’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내년 출시 계획을 밝혔다. ‘더 뉴 i30 N’은 고성능 브랜드 N의 대표 모델인 i30 N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i30 N은 2017년 유럽에 출시된 뒤 올해 9월까지 2만6323대가 판매되며 현지에서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를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 2018년에는 독일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아우토티트가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카’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더 뉴 i30 N’을 내년 초 독일과 영국 등에 먼저 출시하고 향후 호주 등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 뉴 i30 N’은 주행 성능을 대폭 강화

했다. 수동만 있던 기존 모델과 달리 2.0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에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를 맞물려 최고 출력 280마력의 힘을 내는 자동 모델과 최고 출력 250마력의 힘을 내는 6단 수동변속기 모델 2가지를 제공한다. 8단 DCT는 벨로스터 N에 추가된 것과 같은 고성능 전용 변속기로, 일종의 자동화된 수동 변속기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5.9초에 불과하다.

주행 특화 기능도 추가했다. 20초간 엔진과 변속기의 성능을 끌어올려 일시적으로 극한을 주행할 수 있게 하는 N 그린 시프트(NGS), 고속에서 변속 시 높은 엔진회전으로 가속감을 강화한 N 파워 시프트(NPS), 역동적인 주행 상황을 감지하면 최적화된 변속 패턴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N 트랙 센스 시프트(NTS) 등이 대표적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코로나 혼공시대... 교육업계 '비대면 서비스' 강화

대교, 교육플랫폼 '마카다미아' 학습정보·서비스 한곳에
 웅진씽크빅, 유튜브 채널에 초등학습 콘텐츠 무상 제공
 비상교육, 중등 인강 전용 스마트 학습기 '알파랩' 출시

교육업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학습지 시장 위주로 운영되던 교육업체는 물론 기존에 동영상 강의를 주로 하던 대다수 업체도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강화를 위해선 인공지능(AI) 학습 등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을 늘리고,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에 공짜로 주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까지 늘고 있다.

11일 국내 교육업체 등에 따르면 대교그룹은 눈높이·차이홍·솔루니 등 대교의 주요 학습 브랜드 정보와 학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플랫폼 '마카다미아(macadamia)'를 오픈했다. 마카다미아는 학습 신청 및 새로운 제품 출시 정보, 학습 진행 과정 및 결과 등 대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원그룹도 에듀테크 기술을 발판 삼아 '비대면 학습서비스'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교원에듀는 화상 관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화상관리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화상랜드'를 선보였다. 스마트 화상랜드는 교원 에듀테크 대표 브랜드들의 화상 서비스를 통합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다. 스마트 빨간펜, 창의융합 영재스쿨, 레드펜 AI 수학, 도요새 잉클리시·중국어의 학습자들은 스마트 화상랜드를 통해 통합 화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교원구문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화상 수업 서비스인 '스마트 클래스'를 확대했다.

웅진씽크빅은 AI 기술을 적용한 'AI 수학', 초등 전 과목 AI 학습지 '웅진스마트올'을 출시하며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원격교육 환경 조성을



초등학생이 전과목 AI학습 웅진 스마트올을 활용해 비대면 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웅진씽크빅

위해 '스마트올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초등 전 과목 학습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800여 개의 교육 콘텐츠를 스마트올TV에 공개했고, 누적조회 수는 2157만 명에 달한다. 유료 백과사전 플랫폼 '웅진스마트올백과'를 비롯해 9월에는 학습 및 독서 스마트교육플랫폼 '웅진북클럽' 인기도서 콘텐츠 100편을 선정해 유튜브 채널에 무료로 공개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온라인 초등 교육 브랜드 '일간대치동'에 비대면 교육을 집중하고 있다. 유료 수강 신청생 수는 올 4~6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55% 증가했다. 일간대치동은 대한민국 '교육 특구'로 불리는 대치동의 노하우를 그대로 집약한 온라인 초등 교육 서비스다. 일간대치동은 코로나 19로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대비하고 개학 연기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

생을 위해 1만 명 무료 수업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휴원 권고가 내려진 전국 학생들이 휴원 중에도 차질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 수업 플랫폼'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시원스쿨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더욱 많은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별 강사들의 라이브 특강을 통해 정확한 발음, 자격시험 준비 등 어학 공부 팁을 전하고, 현지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별 문화도 소개한다. 시원스쿨은 선물도 비대면으로 주고받는 트렌드에 따라 인강도 '기프티콘'으로 구매, 선물할 수 있도록 '키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했다.

비상교육도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초등 스마트학습 프로그램 와이즈캠프는 전용 스마트 학습기를 통해 쌍방향 그룹 화상수업과 맞춤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등인강 수박씨닷컴은 원격 화상 집중 관리 기능이 적용된 전용 스마트 학습기 '알파랩'을 출시했다. 유치원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해선 국내 유일 온라인 유아학교 '누벨TV'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T맵이 中企 기술 탈취”... SKT “특허침해 아니다”

SK텔레콤(SKTEL)이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자사의 서비스를 기술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맑은생각'의 정한욱 대표는 올해 2월 SKTEL을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 개발해 출시한 내비게이션 전화 도우미(내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SKTEL이 기술 탈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T맵 내비게이션 사용 시 전화가 와도 화면이 사라지지 않는데 이것이 내전도 앱의 기술 탈취 결과라고 주장한다.

내전도는 길 안내 중 전화가 와도 화면이 꺼지지 않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이다. 2012년 당시 정 대표는 T맵 전용으로 이 앱을 출시했다. 휴대전화에 앱을 깔면 T맵 작동 여부를 내전도가 인지해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 2012년 3월 정 대표는 이 기술을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 전화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으로 특허 출원했고, 같은 해 11월에 등록받았다. 이후 관련된 기술 3개를 추가로 출원해 등록받았다. 또, 미국 등에 패밀리티허 출원을 해 등록받기

도 했다. 패밀리티허는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보호받는 특허를 뜻한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 SKTEL의 모바일 앱 마켓인 T스토어에서 내전도 앱을 유료로 판매했다. 내전도는 2013년 3월 T스토어 베스트앱으로 선정됐고, 2014년 9월 T스토어 베스트앱 유료부문 전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당시 T맵과 연락해 공동마케팅을 제안하기도 했고, SKTEL이 T맵과 함께 쓰면 좋은

**“전화 와도 내비 화면 사라지지 않는 기술 무단 사용”
 벤처 '맑은생각' 특허권 위반 혐의로 SKTEL 형사고소
 SKTEL “중기부서 조정중단된 사안, 檢도 불기소 전망”**

'T맵 앱스'에 내전도를 묶어 노출하기도 했다”며 “SKTEL과 간접적으로 협업한다고 생각해 T맵용으로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 SKTEL에서 만든 앱을 소개해야 한다고 T맵 앱스에서 정책이 바뀌었다며 내전도 앱을 뺐고, 2018년 T맵이 내전도 기술을 업데이트해 무료로 출시했다”며 “유료 앱인 우리는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소송에 나서기 전 지난해 11

월 중소기업기법부(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정 신청했다. 위원회는 기술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전·현직 판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조정·중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정 씨는 SKTEL이 계속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실시료를 받길 원한다며 보상안으로 375억 원을 요구했다. 내전도 앱 1회 다운로드

가격 1500원에 T맵 가입자 수 2500만 명을 공급 금액이다.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조사 이후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올해 3월 조정을 종결했다. 중기부가 '조정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인데, 조정 중단은 양측의 의견이 너무 달라 조정안을 내놓을 수 없거나 조정 신청을 한 측이 제시한 안을 상대측이 거부할 때 내려진다. 구체적인 조정 중단 이유에 관해 중기부

관계자는 “조정 중재위원회가 신청인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조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과 중재를 이끄는 곳이며 그 자체로 기술 탈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TEL은 이 같은 중기부의 조정 중단 결정이 사실상 기술 탈취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SKTEL 관계자는 “어떤 공적 기관에서도 특허 침해 결론이 나온 적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결론 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정 대표 측은 중기부의 조정 중단 결정이 말 그대로 조정을 중단했다는 뜻에 그친다며 특허 침해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중기부 관계자가 언급한 '증거 불충분'도 부인했다. 위원회가 보낸 통지서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결함'이라고만 있지 증거 불충분이라는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조준현 법무법인 더법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만약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과방위 국감 2주차 '원전 안전성' 쟁점

후쿠시마 오염수·해킹 등 의제

2주차로 접어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안전 우려가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 방출을 비롯해 원전 해킹 문제와 드론 무방비 노출 등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국감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원전이 자동 정지된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3일 부산에 상륙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인해 고리 원전의 원자로 47기의 운전이 정지된 바 있다. 같은 달 7일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월성 원전 원자로 27기의 터빈과 발전기 기동이 멈추기도 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태풍에 따른 원전 중단사태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 톤 방출을 앞두고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 125만 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져 있는 상태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방사능 농도 또는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킹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에 발생한 해커의 공격 시도는 총 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내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현재 85명으로, 최근 3년간 2명의 인력만 늘어났을 뿐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가구·인테리어 업계 '프리미엄' 승부수

올해 초부터 이어진 '집콕' 열풍에 흥행하고 있는 가구·인테리어업계가 '프리미엄' 공략에 나섰다.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에 오픈하우스를 열고, 프리미엄 인테리어 매장을 확대하는 등 고품질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11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까사미아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오픈하우스(사진)를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실제 아파트 단지 내에 가구를 배치하고 인테리어 공간을 마련해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형호 까사미아 영업전략팀장은 “매장

까사미아, 삼성과 오픈하우스 운영
 넥서스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이 아닌 실제 주거 공간에서 프리미엄 가구와 가전의 연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주 고객들의 만족감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까사미아가 마련한 오픈하우스에서는 최신 리빙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당 아파트 공간 구조에 최적화된 까사미아의 프리미엄 가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의 가전과 라이프스타일 전문 온라인몰 '굳닷컴'의 인테리어

소품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까사미아는 오픈하우스를 방문하는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 매일 말 선정된 고객에게는 까사미아의 인기 가구도 증정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인테리어 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본격화한 곳도 있다. 넥서스는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를 오픈했다. 리빙 컨시어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다. 넥서스는 이 매장을 통해 다양한 명품 가구 브랜드와 견제자를 조명한 프리미엄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넥서스는 세계적인 명품 가구·견제자, 맞춤형(커스



텀메이드) 가구까지 함께 선보이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인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LC)'도 배치했다. 이들이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통해 고객 삶의 방식을 반영한 공간을 설계해준단 계획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쌀쌀한 날씨에... '월동용품' 벌써 진열대 접수

예년보다 빠른 기온 하락에 유통가의 시선은 벌써부터 겨울로 향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부터 일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평균 기온도 전 주(9/28~10/4)의 19.2도보다 5도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역시 올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독감에 대한 우려가 예년보다 커지면서 미리 월동용품 장만을 서두르고 있다.

이마트는 1일부터 7일까지 난방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기매트가 작년 동기 대비 169.7%, 전기요가 80.3% 신장하는 등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겨울 의류들도 벌써부터 판매가 늘어 같은 기간 스웨터는 전년 대비 53.7%, 남성 점퍼는 85.8% 매출이 신장했다. 일교차가 커지자 아동 점퍼의 경우 400%가 넘는 신장을 기록했으며, 아동 워머 이너웨어도 13.5%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이에 이마트는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난방용품을 선보였다. 신일 커버 분리 전기요를 싱글 8만9000원, 더블 9만4000원에 판매한다. 보국 그레이양 전기요는 싱글 11만원, 더블 11만9000원에 선보였다. 1인 가구 트렌드를 반영해 국일 1인용



이마트 매장에 전시된 난방용품.

전기요(4만9900원)도 판매하고 있는데, 1인용 전기요는 1일부터 7일까지 1000개가 넘게 팔려나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급격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이사·혼수·김장 등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김장 시즌을 맞아 백화점 전 점에서 올 연말까지 김치냉장고 직매입 상품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진행에 따라 김치냉장고 직매입 행사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른 7월부터 시작해 1차 직매입 물량 1000대를 완판했다. 김치냉장고 2차 직매입 물량도 1200대 추가로 확보해 판매한다. 대표 품목으로 '위니아담채 스탠드형 김치냉장고551L(CDQ57EVFLS)' 437만 원, '위니아담채 스탠드형 330L(CDT33DVMAS)' 237만 원, '위니아담

이마트, 전기매트 매출 170% ↑
아동 점퍼 판매도 400% 이상 늘어
롯데백, 김치냉장고 직매입 행사
CU, 두유·썩떡 등 이색호빵 내놔

채뚜경형 221L(CDL22EKSXS)' 165만원에 판매한다.

혼수 준비 고객을 위해서는 12일부터 25일까지 웨딩 위크를 펼친다. 명품·가전·가구 카테고리의 11대 웨딩 브랜드(삼성/LG/부세론/불가리/버버리/실리 등)에서 구매 금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더블마 일리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12일부터 18일까지 대규모 리빙 페어도 준비했다. 본점에서는 가구, 휴패션, 주방, 식기 등 리빙 상품군이 총망라된 '홈스타일 페어'를 열고 에이스, 나뚜찌, 휴집대 등의 브랜드 진열·특가 상품을 10~40% 할인 판매한다.

G마켓에서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여성 의류의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가족/모피(70%) △야상/점퍼/패딩



CU 이색 호빵 시리즈.

(24%) △니트/가디건(21%) △자켓/베스트(5%) 매출이 늘었다. 남성 의류는 △자켓/코트(15%) △티셔츠(20%) △패딩/점퍼(23%)의 매출 증가세가 돋보였다. 일반 의류에서는 남녀 경량패딩 매출이 전년 대비 36% 늘었다.

11번가는 4만여 종에 달하는 가을/겨울 인기 패션 상품을 총망라한 패션 할인 행사 '뉴시즌 뉴패션' 기획전을 18일까지 진행한다.

나이키, 휠라, 폴햄, 탑텐, 행텐주니어 등 총 8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가을 신상품부터 겨울 패딩 등을 대거 선보인다. 11번가는 "겨울 패션 상품은 '패딩'이 대세"라며 "이너웨어로도 착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패딩 베스트와 경량 패딩 점퍼, 롱패딩 등 한겨울 필수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겨울철 대표 간식 '호빵' 신제품 출시가 활발하다. CU는 '할머니얼 세대' 소비자를 겨냥해 두유와 썩떡, 팥초치킨 등 호빵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메뉴를 활용한 이색 호빵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다.

CU는 △삼육두유 호빵 △썩떡썩떡 호빵 △멕시카나 팥초치킨 호빵 3종을 최근 출시했으며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왕호빵 3종(1700원)도 선보인다.

인기 속재료인 단팥, 고기부추, 숯불갈비를 활용한 왕호빵 중량은 일반 호빵(90g) 대비 33% 늘어난 빅사이즈(120g)로 한 개만 먹어도 든든한 양이 특징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차별화 상품으로 기획한 요리형 호빵 3종, 디저트형 호빵 3종, 단팥 호빵 등 일반 호빵 3종 등 총 9종을 새롭게 내놔다.

노태환 GS리테일 빵 카테고리 담당 MD는 "강추위가 시작되기 전인 10~11월의 호빵 매출이 연간 호빵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호빵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동절기 대표 간식거리로 호응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금추' 부담된다면... 김장, 11월로 미루세요

남부 지방 물량 출하되면 중순 이후 가격 안정 기대

배추 가격 폭등으로 김장 부담이 커진 가운데 김장 시기를 늦추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고행지 배추는 동해안을 관통한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출하가 이뤄진 9월부터 가격이 폭등했다. 고행지 배추는 10월에도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김장 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파종 시기가 강원도보다 늦은 남부 지방의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는 배추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1월 중순 이후로 김장 시기를 늦추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행지배추는 10월 하순 출하가 마무리되고 가을배추는 10월 중순부터 출하된다. 가을배추는 생산량이 고행지배추의 3배가 넘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추 가격은 포기당 1만원에 진입하는 등 예년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10월 기준 김장비용(20포기 기준)

은 전년보다 10만원 이상 오른 40만원대 초반이지만 11월에는 주재료인 배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에서도 계약 재배지 중 강원도는 작황이 좋지 않지만 9월초를 전후해 파종하는 전남 해남을 비롯한 남부 지방은 태풍 피해가 거의 없어 물량 부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추의 생육기간은 70~80일로 남부에 파종한 배추들은 대부분 11월 초중순경 출하된다.

11월 남부 지방의 배추가 출하되면 포장김치 업계의 배추 수급 부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온라인 판매가 중단된 포기김치의 판매 재개도 기대해볼 수 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배추 수급은 물론 포장김치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달부터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며 "물량 부족으로 축소된 포장김치 할인율도 상황

을 봐서 다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김치 업계는 9월 이후 10월 들어 서까지 배추 공급물량이 예년의 50% 수준으로 하락하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 외에 온라인 판매 등은 중단한 상태다. 일부 포장김치 업체는 배추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으로 추가 가격인상을 검토했으나 11월 공급물량 추이를 지켜본 후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포장김치업계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김치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이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상반기 가격인상은 현재와 같은 배추 파동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포장김치 업계의 수익률도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에도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기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대상 증가집과 CJ제일제당 비비고김치는 올 상반기 포장김치 가격을 각각 5.7%, 3% 인상한 바 있다.

유희희 기자 yhh1209@



뮤지엄 된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5일까지 백화점 전체를 예술 작품으로 꾸미는 '판교 아트 뮤지엄'을 진행한다. 이번 판교점에 서 진행되는 '아트 뮤지엄'은 점포 전체를 180여 개의 예술 작품으로 꾸민 대규모 '아트 이벤트'다. 고객들은 쇼핑을 즐기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한국 미술의 거장 이우환 작가의 '이스트 윈즈(East Winds)', 서민화가로 불리는 박수근의 '노상' 등 현대 미술에 한 획을 그은 작가들의 원화들을 포함해 총 200여 원 규모의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CU, 오디오 드라마 '편의로운 수라간 생활'

유튜브 연재... MZ세대 공략

CU가 업계 최초로 듣는 오디오 드라마 '편의로운 수라간 생활'을 유튜브에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디오 드라마 '편의로운 수라간 생활'은 네이버웹소설 '월하정인'으로 유명한 인기작가 놀마와 일러스트레이터 BADegg가 참여한 웹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이 작품은 2020년을 사는 CU 스태프 '조은'이 타임리프를 통해 조선시대 수라간 나인으로 활약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로맨스를 주축으로, 2000년대 초반 오글거리는 대사와 스토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소(인터넷 소설)'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오디오드라마 편의로운 수라간 생활은 1인 N역 상대모사의 달인으로 9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유준호와 캐릭터 목소리 전문 유튜버 더빙레이디가 맡아 생동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인다. CU가 웹드라마, 웹소설에 이어 오디오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은 편의점의 주고객이자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스타일러 콘텐츠에 CU를 자연스럽게 녹여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브랜드와 상품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BGF리테일 연정옥 마케팅팀장은 "고객들이 CU라는 브랜드 자체를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트렌드에 맞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소비 살아나나' 백화점, 연휴 덕에 매출 늘어

신세계·현대·롯데백 세일 기간 14%·9%·5%씩 상승

백화점 가을 정기세일 매출이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효과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기대도 나오고 있다.

11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가을 정기세일 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하루평균 매출이 지난해 세일기간(9/27~10/6)보다 하루평균 대비 5% 늘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같은 기간 가을 세일 매출이 각각 14.3%, 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 보면 남성패션, 해외명품, 리

빙용품의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진 반면 여성 의류는 회복세가 더뎠다.

롯데백화점에서 남성 패션, 식품, 해외 명품의 하루평균 매출은 각각 19%, 20%, 13% 증가했다. 반면 여성 패션의 하루평균 매출은 9% 줄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세일 기간동안 신장세가 가장 높은 품목은 생활(리빙) 부문으로 56%에 달했고, 가전이 42.5%로 뒤를 이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전통적인 가을철 이사, 혼수 시즌이 명절 특수와 맞물려 시너지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골프의류 및 관련 제

품이 작년보다 36.9% 늘었다.

특히 이번 세일 기간 동안 교외형 아웃렛은 백화점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정기세일 동안 롯데 교외형 아울렛 6곳의 하루평균 매출은 지난해보다 31% 늘었다. 남성 패션과 해외 명품의 하루평균 매출이 각각 43%, 42% 늘면서 전체 매출을 이끌었다. 생활가전의 하루평균 매출은 26% 증가했고, 백화점에서와 달리 여성 패션 부문도 21% 늘었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인 8월 초의 소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코로나 시대의 쉽고 빠른 창업 솔루션

왕의귀환

BSK (BBQ SMART KITCHEN)

BBQ 쿠킹 스튜디오

매출은 **확**

일 예상매출 약 150만원 올랐습니다
연 환산시 기대매출 5억원

5천만원 내외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 **빠졌습니다**

투자비는 **속**

수익성은 **급**

좋아졌습니다

매장 인건비 부담없는
배달전문 매장
월 정상운영 시 1천만원
이상 수익 가능



• 투자비용 5천만원 (표준기준, 점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만원, %별도)

구분	B.S.K	올리브치킨카페	비고
기준면적	8평	20평	
임차보증금	1,000	2,000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이행보증금	500	500	계약 종료시 반환
가입비	500	1,000	경영지도 및 관리
교육비	200	380	치킨대학 외식 전문가 과정
인테리어	1,200	4,400	평당 150만원/220만원
주방기기차	1,600	3,720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합계	5,000	12,000	별도 공사미포함

• 계약현황
신규점 약 120건 계약 (가맹예치 포함)

• 기대수익
BSK매장 상위매출 Top 5 (단위:만원, 2020.8.1-31기준)

NO	점포명	일 평균 매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서울둔촌점	225	1,000	95
2	서울강서구청점	200	1,000	70
3	서울양재점	195	1,000	85
4	전주효자서곡점	190	1,000	70
5	창원상남점	185	1,000	50

*자료제공: 제너시스 BBQ

bb.q X **네고왕** 조회수 **662만 회 돌파**

bb.q 멤버십 가입자수 **250만 돌파** (2020.9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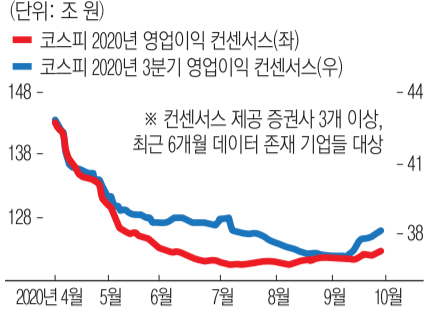
• 창업문의 : 080-383-9000

• 검색창에 **비비큐 창업** bbqchangup.co.kr 을 검색하세요

3분기 어닝시즌 개막... '실적株'에 쏠리는 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익 38조
지난해보다 18% 증가 전망
"SK하이닉스·현대차·SKT
기아차 등 대형가치주 주목"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단위: 조 원)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3분기 어닝시즌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막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개 이상 증권사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총 38조18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2% 증가할 전망이다. 추정치대로라면 올해 3분기는 지난 2018년 3분기 이후 8개 분기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그간 연초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해 높게 설정된 이익 전망치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되는 패턴이었지만 올해 3분기는 이러한 흐름을 깰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난 한주에만 전주 대비 1.0% 상승했다.

특히 지난주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내놓

으면서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증권, 화학, 철강 등 경기민감 가치주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시장으로의 변화 초입 단계 들어선 상황에서 삼성전자 실적 개선 소식은 10월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지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민감 가치주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코스피 실적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 및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재확산과 11월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 요인이 이어지는 만큼 실적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예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및 유럽의 경기 개선 모멘텀 약화, 정책 공백은 수요에 대한 우려를 재차 확대시킬 수 있다"며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 전까지는 실적이 양호한 업종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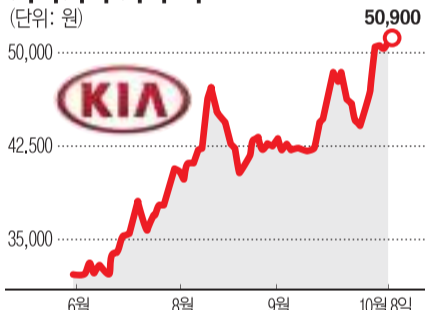
3분기를 계기로 대형가치주와 코로나19에 취약했던 이른바 '코로나 피해주' 중 실적 바닥을 다지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민 카카오페이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 현대차, SK텔레콤, 기아차 등 대형가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적 우수 업종이 주로 가치주에 많고 업종 총체로 보아도 대형주들의 이익개선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또한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 우려가 컸던 시기의 부정적 전망치가 최근 컨센서스 산출에서 제외되자 호텔산과 대한항공, 강원랜드 등 '코로나 피해주'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승했다"면서 "코로나에 취약한 기업인만큼 이익 전망치 상승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하방 경직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 호조... 주가도 '썩썩'

미국 등 판매 현저한 회복세
4분기 신차 출시 효과 기대
주가 5년 만에 최고치 기록

기아차 주가 추이
 (단위: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약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5년여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특히 수소차 등 향후 자동차 시장을 리드할 친환경차에서도 수혜가 예상되며 증권가도 호평을 내놓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의 9월 잠정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5만4790대(제네시스 별도)라고 밝혔다. 기아차의 판매량은 24.4% 증가한 5만5519대였다.

내수판매 역시 현대차가 6.7만 대(33.8%), 기아차는 5.1만 대(21.9%)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대차의 경우

제네시스 브랜드만 1.0만 대(187.5%) 팔리며 8월의 부진 한달만에 다시 1만 대 고지를 회복했다. 전체 판매비중은 15.3%에 달한다.

특히 기아차는 1994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9월 소매 판매량과 3분기 소매 실적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두 회사의 미국내 점유율은 총 8.2%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업체인 닛산, 스바루, 미쓰비시, 도요타의 합산 점유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

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 회사의 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5일 종가 기준 18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아차 역시 같은 날 종가가 5만 원을 넘었다. 기아차 주가가 장중 기준 5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4년 6개월 만이다. 기아차는 상승세를 더해 지난 8일에는 장중 5만150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들 주가의 상승세에는 기관이 힘을 보태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지난 달 25일 이후에만 107억 원 순매수했다. 기아차의 경우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달 11일 이후 1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다가 지난 8일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다. 이 기간 순매수 금액만도 1427억 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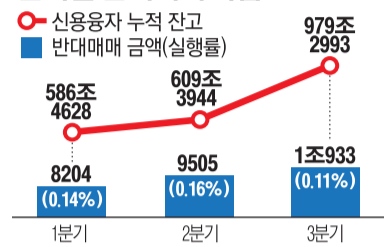
증권사들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차를 앞세워 향후 점유율을 더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동학개미 '빚투 그림자' 3분기 반대매매 역대급

1조933억... 매 분기 증가
신용용자 거래 급증 영향

분기별 반대매매 자금 (단위: 억 원)



올해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막대한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온 가운데 3분기 반대매매 실행 금액 역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발 폭락장 이후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자 신용용자 거래가 급증하면서 반대매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7월 1일-9월 30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총 1조9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분기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매번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1분기에는 총 8204억 원, 2분기에는 9505억 원으로 늘어나다가 3분기에는 1조 원을 넘어섰다.

반대매매는 신용용자 거래에서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매도해 돈을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후, 담보 가치가 하락해 약정한 기간 내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한다. 레버리지 활용의 부작용으로, 통상 개장 전 시초가로 팔아버려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배가 된다.

3분기 반대매매가 급증한 이유는 신용용자 전체 거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체 신용거래 규모 커지면서 덩달아 반대매매가 진행된 금액도 늘어난 모양새다. 최근 빚투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신용용자 잔고는 매월 급증했다.

실제 신용용자 잔고 증가세도 가파르다. 신용용자 잔고는 일별로 집계되는데, 일정 기간별로 나눠 단순 합산하면 신용용자 누적 잔고가 산출된다. 이를 통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변화하는 잔고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신용거래 잔고는 자금 유출입 흐름을 보여주는 수치로, 일별로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 거래가 포함돼 전체 시장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산출식에 따르면 1분기 신용용자 잔고 집계는 586조4268억 원로 나타났다. 누적 기준 2분기에는 609조3944억 원으로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강세장이 이어진 3분기에는 979조2993억 원을 기록해 1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몸집을 불렀다.

월별로 따져도 매일 신용거래 활용이 증가했다. 코로나19발 폭락장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진 4월, 한 달간 신용용자 누적 잔고는 159조1944억 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기록했다. 9월에는 360조3206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용자 누적 잔고 규모 대비 반대매매가 진행된 수치가 따지면, 3분기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용용자 잔고 규모가 커지면서 반대매매 절대 금액도 늘었지만, 신용거래 활용도가 더 컸던 셈이다. 1분기 전체 신용용자 잔고 대비 반대매매 진행률은 0.14%로 나타났고, 2분기에는 0.16%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3분기에는 가장 낮은 0.11%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증권사별로는 법적으로 가능한 신용공여 한도가 있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신용용자 잔고가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다"며 "최근 신용거래 증가 추세로 시장 리스크를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용자 대출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용자 활용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하락장을 맞이할 경우, 손실이 커지기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아 기자 ljh@

소액주주 상반기 90% 증가... 연말 증시 변동성 확대

대주주 편입 회피 위한 개인 매도행렬 이어질 수도

올해 상반기에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주요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숫자가 평균 9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한 증시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가총액 1~100대 상장사(지난 8일 기준) 중 반기보고서에서 소액주주 현황을 공시한 23개 기업의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 숫자는 작년 말보다 평균 89.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상장사 소액주주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기관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줄기차게 사들였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종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 확대에 새로 대주주에 포함되는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861명, 보유 주식 금액은 41조 583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감안할 경우 올해 연말 대주주로 신규 편입되는 투자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들어 증시가 크게 상승한 만큼 투자자들의 주식 평가액도 늘어난 것까지 고려하면 대주주 편입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대주주 기준 확대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앞서 대주주 기준이 하향됐던 2017년 말(25억 원→15억 원)과 2019년 말(15억 원→10억 원)을 앞두고 개인은 2017년 12월 약 5조1000억 원, 2019년 12월 4조8000억 원을 각각 순매도한 바 있다.

따라서 올 연말 대주주 신규 편입 규모 확대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 등의 순매도도 과거 사례보다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10월 11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71,700	-4,900 (1.8%▼)	이오스	3,026	-21 (0.7%▼)
리플	291	-	비트코인골드	9,375	-35 (0.4%▼)
라이트코인	56,450	150 (0.3%▲)	이더리움클래식	6,920	50 (0.7%▲)
대시	79,150	950 (1.2%▲)	퀀텀	2,636	-21 (0.8%▼)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애물단지’ 차량기지 이전 놓고 집값 ‘히비’

‘이전 가시화’ 구로·창동 집값 경증 소음·분진 탓 이전·개발 기대감 커져 기지내 물류센터 조성 양천 주민 반발 대체지역도 경제성 평가 악영향 반대

차량기지	위치	활용 계획
구로차량기지 1호선	구로구 구로동	그린 스마트 벨리(3000가구 규모 주거시설, 지식산업센터, 컨벤션시설, 상업시설)
창동차량기지 4호선	노원구 상계동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의약·생명 관련 기업·연구시설 유치)
수색차량기지 경의중앙선	은평구 수색동	문화·관광 허브시설 조성



철도 차량기지 이전 여부가 아파트 시장을 출렁이게 한다. 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는 소식만 있어도 아파트값이 뛰어오른다. 이전이 지지부진한 곳에선 민원이 거세다.

서울 구로구 구로주공2차 아파트는 2년도 안 돼 매매값이 두 배가량 올랐다. 2018년 초만 해도 이 아파트에선 4억 5000만 원이면 전용면적 64㎡형을 구할 수 있었다. 1987년 지어진 노후 아파트인데다 지하철 1호선 구로차량기지과 마주 보고 있어 저평가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 전용 64㎡형은 9억 원까지 호가한다. 그해 서울시와 구로구가 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게 아파트값 상승 기폭제가 됐다. 여기에 재건축 사업

까지 추진되면서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와 이웃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인광아파트도 차량기지 이전 수혜주로 꼽힌다. 올해 초 7억 원 대에도 물건을 찾을 수 있었던 이 아파트 전용 122㎡형은 지난달 11억8500만 원까지 값이 올랐다. 창동차량기지와 나란히 있는 도봉온천면허시험장이 경기 의정부시로 옮겨가기로 확정되면서 차량기지 이전이 빨라질 것이라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간 차량기지 인접 아파트는 주변 아파

트보다 가격 상승이 더뎠다. 철도가 수시로 오가며 일으키는 소음과 분진 탓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시가지 한복판을 차지한 차량기지 탓에 유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기 힘들었다. 차량기지 면적이 수십만 ㎡에 이르기 때문이다.

민원이 심해지고 개발 압력이 가중되자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차량기지 이전·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차량기지가 후보지로 오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에서 차량기지 이전 후

그 빈 땅을 개발하면 일대가 환골탈태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동차량기지의 경우 2025년 이전 후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조성, 연구·산업 시설을 유치한다는 게 서울시와 노원구 계획이다. 구로구도 구로차량기지 부지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컨벤션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갖춘 ‘그린 스마트 벨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대가 큰 만큼 차량기지 부지 이전·개발을 향한 지역 주민 욕구도 강하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내 차량기지 내 유휴시설에 공유형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생활물류발전 방안’을 지난달 발표하자 후보지로 오른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에서 반발이 컸다. 새로 물류센터까지 들어서면 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5호선 고덕차량기지 인근 주민들도 교통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

자는 “이번에 발표한 부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 후보지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며 “차량기지 자투리땅에 짓는 만큼 교통 문제도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차량기지가 옮겨갈 대체지를 찾는 것도 과제다. 지금은 대부분 경기·인천지역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대신 서울 내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차량기지 이전지로 거론되는 경기 광명시에선 이 같은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선이 길어지면 경제성 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난점이다.

김영훈 대신대 휴먼건축공학부 교수는 “차량기지 이전이 바람직하지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철도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도시 경관이나 소음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기지는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서울 외곽까지 번진 전셋값 급등세

전세난에 매매·전셋값 차이 갈수록 줄어... 일부 소형 매매가 추월 서울 전세가격 지난달 53.6%... 51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시행으로 서울 강남권은 물론 외곽지역까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 일부 소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따라잡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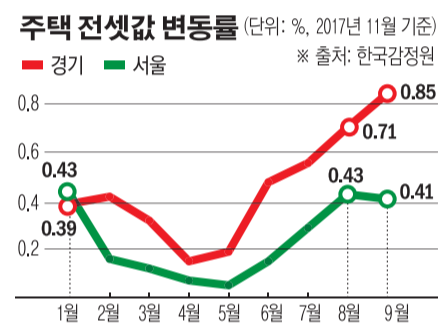
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형 아파트인 ‘비스트위트바이올렛5차’ 전용 면적 12.19㎡형 전셋값은 1억1500만~1억

200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지난달 1억 1600만 원에 실거래되기도 했다.

그런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달 23일 1억5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매매값이 전세가격보다 싼 것이다. 전셋값의 매매값 추월 사례는 흔한 일이 아니지만, 현재 이 아파트 매매 호가는 1억2000만~3500만 원 선으로 전셋값과 매매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여의도 리버뷰’ 전용 12.19㎡형도 이달 5일 1억25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매매 시세는 현재 1억 2000만 원 선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이지만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가 1억 원이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원구 월계동 정백3단지 전용 49.77㎡형은 매매와 전세가격 차이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인근 공릉 라이프3단지(전용 34.44㎡)는 9000만 원 정도다. 중랑구 면목동 면목한신(전용 44.50㎡)도 매매·전세가격 차이가 7000만 원 정도다. 인근 J공인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셋값이 매



매값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있다”며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싼 전셋집을 찾는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넘는 143을 기

록했다.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향후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시장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매매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정부 예상대로 만약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강통전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기준 53.6%로, 강통전세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전월(53.3%)보다 0.3%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51개월만의 상승세 전환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서울·수도권 등록 임대 연말까지 27만가구 자동말소

세입자 갱신 청구권에 매몰 확대 난방

서울·수도권에서 올 연말까지 주택 단 기입대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가 총 27만 1890채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은 세제 혜택이 없어져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주택의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 주택시장에 당장 매물로 풀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 임대주택은 46만7885채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10만8503채, 2만1143채가 나오게 된다.

서울에선 △송파구(1만9254채)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순으로 등록임대주택이 많이 풀렸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등록 임대 유형 중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

입임대를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하기로 한 건 주계약자들이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제도를 악용해 주택 매입에 나섰다 때문이다.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8월 18일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물리면서 8월 말 기준 이미 40만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총 159만4000채였던 것을 감안하면 재고의 4분의 1이 바로 말소된 것이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내년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로 증가한다. 특히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로 불어난다.

하지만 이들 등록임대가 당장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기존 살던 세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어서다. 등록임대가 자동말소 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주의 분양캘린더

10월은 전통적으로 분양 성수기로 불린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분양 물량이 적다. 특히 이번 주에 선보일 일반분양 물량은 732가구에 불과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 7개 단지, 5319가구(일반분양 73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 웰리지 라테라스’ 오피스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 센트럴 자이’ 오피스텔 등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14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구로 예미지 어반코어’ 오피스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오피스텔·하남시 학암동 ‘위례 신혼희망타운’ 등에서 청약 당첨이 갈린다.

정당계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17곳이다.

경기 광주시 삼동 ‘힐스테이트 삼동역’·수원시 원천동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등에서 정당계약을 받는다.

9개 단지는 견본주택 문을 연다. 경기 안양시 박달동 ‘안양 리버 자이 르네’·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충남 당진시 수정동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 등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0/12	오픈	충남	당진시	수정동	호반써밋시그니처2차	10/14	발표	대구	북구	북천동	대구북천(행복주택)								
10/12	접수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8단지(국민임대) (~10/23)	(수)	대전	유성구	용산동	대전용산11B호반써밋그랜드파크	10/15	발표	경기	화성시	능동	화성능동B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9단지(국민임대) (~10/23)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센트럴대원컨터빌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소사현진에버빌 1순위(기타지역)											경기	안양시	박달동	안양리버자이르네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기트리움 2순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
10/13	발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지금디포레	(목)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자이	10/16	계약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4단지(장기전세) (~10/21)			
					광주시					삼동						힐스테이트삼동역 (~10/16)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9단지(장기전세) (~10/21)
					수원시					원천동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10/21)			송파구
					파주시					와동동						운정아이파크더테라스(~10/14)	대구	서구	
10/14	오픈	경기	시흥시	거모동	시흥군자서희스타힐스	(수)	발표	경기	하남시	감일동	10/14	계약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B1(장기전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웰리지라테라스(~10/14)	고덕강일6단지(장기전세) (~10/21)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소사현진에버빌 2순위	고덕강일8단지(장기전세) (~10/21)	
					양평군											양평읍	양평캐미유스테이트 1순위		고덕강일9단지(장기전세) (~10/21)
10/14	접수	인천	부평구	서구	원대동3가	(수)	발표	경기	하남시	감일동	10/14	계약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B1(장기전세)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자이 (~10/14)	고덕강일6단지(장기전세) (~10/21)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구로예미지어반코어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혼희망타운A3-3b(행복주택)	고덕강일9단지(장기전세) (~10/21)	
10/14	발표	경기	화성시	남양읍	e편한세상남양뉴타운(B11)공공분양	(수)	발표	경기	하남시	감일동	10/14	계약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B1(장기전세)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지금디포레 (~10/19)	고덕강일6단지(장기전세) (~10/21)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제일동경재3차센텀 (~10/17)		고덕강일8단지(장기전세) (~10/21)
					양평군											양평읍	양평캐미유스테이트 2순위	고덕강일9단지(장기전세) (~10/21)	
10/14	발표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벤처창업지원(행복주택)	(수)	발표	대구	동구	신천동	10/14	계약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B1(장기전세)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잇단 압수수색... 檢, 기업수사 속도

SK네트웍스·SPC·BMW 등 고강도 수사... IDS홀딩스 여죄 파헤쳐

하반기 인사 후 민생 사건 집중 검경 수사권 조정 의식 해석도

검찰이 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초 내부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실추된 명예 회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SK네트웍스, SPC, BMW 등 기업 관련 사건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다.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의 BMW코리아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의 서버보관소 등 2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MW는 잇단 차량 화재로 결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6일에는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가 SK네트웍스 사무실과 최시원 회장의 거주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 회장은 20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P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금호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곧 넘겨받는다.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민생사건에도 속도를 낸다.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5000억 원대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 수탁사인 KEB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정·관계와 재계 유력 인사 20여 명의 이름이 담긴 문서를 확보해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정관계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가 맡은 '1조 원대 사기사건'인 IDS홀딩스 여죄 수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IDS홀딩스 사건은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

2000여 명을 상대로 약 1조1000억 원을 빼돌린 폰지사기 사건이다. 주범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고발을 접수하고 전방위적 여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올 초 불거진 검사 간 '독직폭행'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씨 관련 '탈영 무마 의혹', 윤 총장 장모 관련 투자사기 의혹 등과 연관해 해석한다. 성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단순히 하반기 인사가 끝났고,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기조 때문이란 평가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자로 하반기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이 업무과열을 마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박기영 기자 pgy@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등 가을이 깊어졌다. 휴일인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서 시민들이 만개한 황화코스모스 길을 거닐며 계절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현재 “강요된 성매매는 피해자... 처벌 못 해”

“檢, 청구인 피해도 수사했어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범죄자가 될 뻔한 피해자를 구제했다.

현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6월 업주 박모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B 씨와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취업알선자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낯선 장소에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아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과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알선자 등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청구인의 외국인 여성으로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므로 검찰로서는 청구인이 성매매 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한 추가적 수사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현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옵티머스 펀드 사기’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번지나

檢, 靑 관계자 등 연루 명단 확보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재계 고위 인사 명단이 적힌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연루된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문건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5월 10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다. 옵티머스 고문단인 이현재 여사재 이사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운행장, 김진훈 전 국민공제회 이사장 등이 펀드 운용과정에서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초대 최대주주였던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여권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쌓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주당과 인연이

있었던 이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 퇴직한 이후 거짓 탄원을 넣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이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전면부정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법무법인 서평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옵티머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맞지만 6월 계약을 해지했고,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NH투자증권 측도 정 대표가 김모 옵티머스 대표를 한 번 본 것은 맞지만,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gy@

재미 공감 위로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수산·식품 행사라면 어디든 갔죠”... 발품 팔아 박대 ‘대박’

W 기획 인터뷰 박금옥 '아리울수산' 대표

“박대는 군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다. 평소 박대를 좋아하시던 선친을 생각하며 비린내가 없는 맛있는 생선을 전국민이 맛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2010년 수산물 가공업체 ‘아리울수산’을 창업해 10년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박금옥 대표의 말이다. 이번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박금옥 대표는 아리울수산을 창업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군산에서 작은 조식소를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원불교 신자로서 군산시부 원불교회 회장을 30년간 맡아 시내 무료급식소 소장을 맡으면서 봉사활동에 매진했다. 박 대표가 ‘박대’를 사업화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박 대표의 집안 어른이 병상에서 어렸을 때 먹었던 박대 껌질로 만든 박대묵을 먹고 싶어 했다. 박 대표는 지인에게 부탁했지만 살 곳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직접 쫄면 박대묵을 만들었다. 이때 박 대표의 남편은 박대묵과 같은 향토 음식이 사라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빈 건물에 공장을 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창업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2010년 군산시 금암동에서 작게 시작한 박대묵 공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 박 대표는 굴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해 2011년 지금의 아리울수산을 창업했다.

부둣가에서 해풍에 꾸덕꾸덕하게 말린 박대는 군산 향토 음식으로 ‘시집간 딸에게 박대를 선물하면 버릇이 돼 친정에 자주 들른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마치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돌아온다’라는 속담과 비슷하다.

“군산 향토음식 박대, 국민생선으로” 연간 30여 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도 2010년 창업 10년 만에 30억 매출

품질관리 역점... 2년연속 CCM인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대기업 판로확장 위한 정부지원 절실

아리울수산이 판매하는 박대는 황금색을 띠고 있어 ‘황금박대’로 불린다. 2012년 ‘사랑해(海) 황금박대’로 특허청 상표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아리울수산의 상표인 ‘사랑해’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군산을 비롯한 서해에서 잡아 올린 박대가 최고의 식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박 대표의 사명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또 클린사업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해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사회공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에 주어지는 로하스(Life 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인증, 바이(BUY)전북상품 인증을 갖추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우수기업이기도 하다. CCM 인증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식품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면서 민감한 업종에 속해 식품기업의 CCM 인증 획득은 소비자 입맛뿐만 아니라 편의와 건강까지 고려해 제품을 만든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유망중소기업 18개사 중의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박금옥 아리울수산 대표가 황금박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박대는 군산의 향토음식이다. 비린 맛이 없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박대를 전 국민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아리울수산

했다.

아리울수산이 다른 수산물판매업체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소규모 판매의 대량화를 이룩했다는 점이다. 최첨단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위생적으로 가공하고 진공포장을 실시하면서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박 대표는 여성 CEO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뛰었다. 수산물·식품이라는 명칭이 붙은 행사에는 모두 참석하 아리울수산은 매년 30개 이상의 박람회장을 찾았을 정도였다. 여기에 흡소판 판매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는 제주도는 물론 전국에 판매된다. 2017년부터는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년 미국 LA 한인 축제에 참여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로 실시해 미주 한인마켓을 중심으로 수출을 시작해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수출액도 2017년 2만4951달러에서 2018년 4만550달러, 2019년 13만8974달러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박 대표는 또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일자리를 보장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 10여 명의 지역 주민을 생산직원으로 고용해 연간 30톤 이상의 수산물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서해 연안의 풍부한 어장을 가진 수산도시인 군산의 특징을 잘 살려 수협 및 인근 연안에서 제품 원료를 구매해 지역어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포장재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포장지, 박스를

구매하고 농협로컬푸드, 전라북도우수상품관에 생산제품 등을 납품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를 통해 군산지역의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 홍보하며 지역경제와 함께 상생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박 대표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그에게 많은 직함을 맡게 했다. 박 대표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추진단장, 군산여성경영인 이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특별이사, 군산대 식품클러스터 겸임교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이사, 군산여성경영인 부회장 등 굵직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 박 대표는 여성 CEO의 장점으로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사업의 전반을 섬세하게 잘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해 회사 내에서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고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점을 꼽았다. 다만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학연, 지연, 군대 등 사회적 연대감이 다소 떨어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으로서 영업판로를 확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박 대표는 후배 여성 경영인에게 “우선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 안락함 등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열정을 가졌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고서 기업체를 운영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박 대표는 “접대, 선물을 통한 신뢰 관계 형성보다는 좋은 제품과 납기일 엄수 등 약속을 지켜 소비자, 거래처와의 굳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거래처와 소비자의 의견을 꼼꼼하게 반영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묻자 박 대표는 “정부가 여성 기업의 제품 판로 확장을 위한 TV 흡소판 지원 사업 횟수를 늘려주고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산업 전반위기에 대응해 경영자금안정정책이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야흐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정장년, 피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벼락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속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매뉴얼과 다르다. 선배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매뉴얼 말고 실전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ODS 아나원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임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예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된 기술서이다.

이러한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할 뻔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팔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리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활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받을 제도, 마케팅,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아나원 저 | 256쪽 | 국문판권 / 214,900원

천안시 공고 제 2020 - 2028 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

천안시 서북구 외솔동 106-14번지 일원에 천안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게 하므로 공고하고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천 안 시 장

구분	획지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공공지	D	-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중로 3-98 호선에 면한 부분에 공개 확보	-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중로 3-98 호선에 면한 부분에 공개 확보	변경없음
공공처리계획	D	- 중로1-9호선변 완화차로 6m 확보하고 주차면용 차량 진출 입구 계획 - 동축 중로1-9호선 내 2m 확보 및 천안역세권 뉴딜사업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수용, 일방통행 도로 계획, 판매시설의 차양진출 입구 계획	- 중로1-9호선변 완화차로 6m 확보하고 주차면용 차량 진출 입구 계획 - 동축 중로1-9호선 내 2m 확보 및 천안역세권 뉴딜사업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수용, 일방통행 도로 계획, 판매시설의 차양진출 입구 계획	변경없음
공공시설 및 제공	D	- 공공용지기부채널: 10,176㎡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3,059㎡ (대지면적의 15.5%) - 지구단위계획구역외: 7,117㎡ (대지면적의 36.0%)	- 공공용지기부채널: 12,516㎡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부채널: 3,240㎡ (대지면적의 15.5%)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무상증여: 1,089㎡ (합 계 4,329㎡) - 지구단위계획구역외: 7,722㎡ (대지면적의 36.1%) - 지구단위계획구역외 무상증여: 465㎡ (대지면적의 2.4%) - 중로1-9호선 일곽구(9-13m, L=144m) 사업 시행을 천안시(도시재생과)에 의뢰하고 우수방문 혁신지구 및 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되는 우방 소유주지 전부를 시에 무상 증여하고, 시의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이 일체를 부담한다.	변경
주상복합 비율	D	- APT: 기타시설 - 83.57 : 16.43	- APT: 기타시설 - 83.57 : 16.43	변경없음 (주상복합비율 변경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0-110호)

4.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재생략
 * 조지 상세내용 및 도면 등 개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기간: 2020. 10. 12. ~ 10. 30. (토·일·공휴일일 제외)
 ○ 열람장소: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천안시 서북구 범동로 150)
 ○ 관계도서: 개재생략, 열람기간 내에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기타사항
 - 당해 열람(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청 홈페이지(행정공고 및 천안시보)에서도 확인 가능.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폐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잡화 브랜드
몽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폐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오펜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코로나 이후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가 표준 될 것”

프롭테크 분야 개척...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표준화한 주거상품 중심...전본주택도 모바일·온라인 대세 연내 주택 마련? 3040 '청약'·5060 '뜰뜰한 한 채' 전략을

함영진(사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 프롭테크(건설·부동산과 IT를 결합한 산업) 분야 개척자다. 함 랩장은 프롭테크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기 전부터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에 힘썼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비대면)'가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프롭테크의 전성기는 더 일찍 찾아왔다. 이투데이는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의 빅데이터랩을 이끌고 있는 함 랩장을 만나 코로나19 시대의 한국 부동산시장 전망을 들었다.

함 랩장은 올해 이후 한국 부동산 환경 변화 키워드로 '비대면'을 꼽았다. 그는 "토지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보다 표준화한 주거 상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소개와 견본주택 전시는 온라인 시스템의 발달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미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

본주택의 모바일·온라인 공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며 "분양사업자의 개관과 주택형을 VR(가상현실)와 영상으로 촬영해 앱으로 공개하거나 유튜브로 단지 특장점을 소개하는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함께 프롭테크 기술 활용의 급성장도 전망했다. 그는 "프롭테크 기술은 이미 설계와 시공, 인테리어, 정비사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쓰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 이용과 관리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방은 프롭테크 기술 활용 확대에 맞춰 다양한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를 포함한 거래 정보와 청약 정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부동산통계솔루션 '직방RE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 랩장은 "실거래가를 반영한 직방 시



세 고도화 작업과 분양 아파트 3D·호수별 정보 구축,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부동산거래절차 교란 행위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랩장은 내다봤다. 언택트 부동산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온라인 정보 취득이 쉬워진 만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함 랩장은 "고강도

시장 단속과 증거 수집이 이뤄지면 집값 담합과 자전거래, 기타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어 거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시장은 혼돈 그 자체다. 거래 절벽 속에 집값·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함 랩장은 연내 주택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세대별로 다른 전략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함 랩장은 "3040세대는 기존 주택 매입보다 분양시장을 먼저 노려야 한다"며 "전셋값의 60% 정도 자금을 보유한 무주택 수요자라면 분양아파트 청약이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우선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고 청약 가점 수준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쯤 주택 구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5060세대에는 이른바 '뜰뜰한 한 채' 전략을 주문했다. 함 랩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5060세대의 주택 추가 매입은 제한될 전망이다"이라며 "주택이 낡거나 자산가치가 제한된 지역의 주택을 분양권이나 새 아파트로 교체하거나 고급 유희 수요 주거지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트럼프 천적' 튜베리 "바이든에 투표하자"

"이번 美대선, 선거 이상의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천적'인 스웨덴 환경 운동가 그레타 튜베리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튜베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당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지만, 이번 미국 대선은 선거를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적 관점에서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충분치 않고 여러분은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바이든에 투표하자"고 촉구했다.

튜베리는 지난해 9월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당신들이 빈말로 내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아갔다"며 전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유명해졌다. 당시 그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뿐"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이에 튜베리는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 타임 역사상 가장 나이 어린 수상자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연은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튜베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레이저'를 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튜베리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자 트위터를 통해 "아주 웃긴다. 그레타는 자신의 분노조절 문제를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친구랑 좋은 옛날 영화 한 편 보러 가라"면서 "진정해라, 그레타. 진정해!"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김태훈, 제네시스 챔피언십 잡고 상금 1위 도약

6언더파 282타...상금 3억에 GV80 부상, PGA 출전권도

김태훈(35)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2020 제네시스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김태훈은 8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제네시스는 김태훈에게 상금 3억 원과 대형 SUV 제네시스 GV80,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출전권을 수여했다. 통산 4승째를 달성한 김태훈은 시즌 상금 4억 6663만 원으로 이번 대회 컷 탈락한 김한별(24)의 4억 1774만 원을 제치고 상금 1위가 됐다.

김태훈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PGA 투어 더 CJ컵(2020년)과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2021년) 출전권까지 확보했지만 15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더 CJ컵에는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태어난 아들도 걱정되고, 올해 목표로 하는 제네시스 대상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국내 남자 골프 활성화를 위해 제네

시스 브랜드가 2017년부터 개최해 온 대회다. KPGA 코리아 투어 최고 상금 규모이자 대한민국 남자 골프로 대표되는 주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기대를 모은 이번 대회는 변별력 향상을 위해 고난도 코스로 구성해 선수와 골퍼 팬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또한, 언택트 갤러리를 위해 볼 궤적 추적 시스템과 4D 리플레이 장비를 활용한 중계방송을 진행했고, 대회 전 선수를 위한 응원 영상을 받아 골프 코스에 설치된 LED로 전달하는 팬 이벤트도 운영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탓에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나흘 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준 언택트 갤러리와 선수들의 훌륭한 플레이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제네시스 브랜드는 앞으로도 한국 남자 골프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2016년부터 KPGA 코리아투어를 후원해 왔다. 올해 5월에는 후원을 2023년까지 연장해 앞으로 4년간 총 16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김태훈이 11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48년 금호인' 김성산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별세

김성산 금호아시아나 그룹 부회장이 11일 오전 11시 20분 별세했다. 향년 74세.

김 부회장은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 전남대 무역학과를 나와 1973년 금호고속(옛 광주고속)에 입사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48년 동안 몸담으면서 금호고속, 금호터미널, 금호렌터카, 금호리조트 사장 등을 거쳐 그룹 부회장을 지냈다.

김 부회장은 '고객 행복경영'이라는 경영 철학을 앞세워 금호고속을 국내 1등 운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고객을 위하는 것이 고객의 행복과 기업 성장을 견인한다는 철학을 담아 '고객 행복경영'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기



도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부임 후 쌍촌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단체에 10년 이상 후원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국 산학협동연구회 부이사장, 장애인 먼저 실천 광주 운동본부 이사, 광주시체육회 이사회 부회장, 국립광주박물관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4년 산업지원부 국가품질경영 유공자 동탑산업훈장, 2007년 지식경제부 제3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표창 서비스 혁신상 수상, 2010년 지식경제부 에너지 절약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빈소는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7시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사

◆교육부 ◇신규채용 △장관 정책보좌관 김재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박윤규 ◇국장급 전보 △정보통신정책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손승현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차세대 지방재정정보화 추진단장 안병운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파견) 박전수 ◇과장급 전보 △지방세정책과장 하중욱 △지역금융지원과장 홍성철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 총괄기획과장 김영민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 재정정보화사업과장 김수희

◆국토교통부 ◇국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 △항공교통본부장 장만희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김민중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장관 비서관 권순재 △기획재정담당관 김봉덕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디지털조사분석과장 김성현 △카르텔조사과장 전상훈 △대통령비서실 파견 이종선

◆관세청 ◇국장급 전보 △인전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정승환

◆코트라 ◇상임이사 보임 △중소중견기업본부장 김태호

◆대한조선 ◇부사장 승진 △경영지원본부 전무 신재범 ◇전무 승진 △생산본부 상무 정상재 ◇상무 승진 △의장설계부 수석부장 민영욱

◆크리스탈지노믹스 ◇씨지파마슈티컬스 △사장 개빈 초이

부음

'월드시리즈의 사나이' 화이트 포드

1950~1960년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를 풍미한 전설적인 투수 화이트 포드가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91세.



본명이 '에드워드 찰스 포드'인 고인은 뉴욕시 맨해튼 태생으로 1950년부터 1967년까지 오로지 양키스에서 활약한 왼손 투수다. 통산 236승 106패로 0.690의 승률을 기록한 포드는 20세기 최고 승

률 투수로 남아 있다. 특히 고인이 가장 빛났던 무대는 메이저리그 최강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였다. 포드는 1960~1962년 월드시리즈 33이닝 연속 무실점으로 베이브 루스(29와 3분의 2이닝)의 종전 기록을 깨뜨렸다. 이 밖에 월드시리즈 최다 선발등판(22경기), 최다 이닝(146이닝), 최다승(10승), 최다 삼진아웃(94개) 등의 기록에도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는 양키스 투수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에서 '회장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손가락에 침 또는 진흙을 묻히거나 반지로 몰래 공을 꺾어서 공의 변화를 크게 만드는 부정 투구로도 악명 높았다고 AP는 전했다. 고인은 또 한국전쟁 발발로 미 육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1951~1952년에는 마운드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박인규 씨 별세, 박경만(한겨레신문 전국부 선임기자) 씨 부친상 = 11일, 강진군산림조합 추모관, 발인 13일 오전 9시, 061-430-5444

▲최정환 씨 별세, 최재용(아사히신문 외교안보팀장)·미경·덕희(부천 창영초등학교 교사) 씨 부친상, 양진하(제이트로닉스 부사장) 씨 장인상, 유미정 씨 시부상 = 1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학교 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02-2072-202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이제 우리 기업의 역사가 50~60년에 이르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특별경영의 적폐가 누적돼 더는 방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들은 '기업 3법'이라는 규제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내부 병폐를 깊이 인식하고 더 큰 규제가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처리되고 있는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법규를 부르는 명칭도 입장에 따라 다르다. 찬성론자들은 '공정경제 3법'이라 부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업규제 3법'이라 칭한다. '기업 3법'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는 주장과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한다. 그만큼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며 상반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런 논란에서 기업과 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독특하게 기업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별경영의 체제**를 갖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세칭 '재벌'에 의한 가족경영이 한국 기업의 고질적 병폐의 근본 뿌리이다.

경영학에서 **오너 경영**과 **전문가 경영**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오너 경영이 유효한 상황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경영학 학자도 경영권을 대물림하며 **특별 경영**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테

크기업들도 대주주가 경영한다는 예를 들어 왜 우리나라는 대주주 경영을 매도하며 규제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창업자인 대주주가 경영하는 것이 지손 대대로 세습하며 경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대기업의 1세는 창업가로, 2세는 동역자로 기업을 일구고 성장시키며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경제적 공헌을 인정받아 대기업의 **특별경영**이 허용됐고 편법과 비리가 있어도 관용으로 대해줬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 경영권이 3~4세로 세습되는 시대는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3세 경영자는 본인의 능력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하는 **혈연**만으로 거대한 기업을 물려받고 경영을 책임진다. 이런 초보 경영자에 의한 오너 리스크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마디로 미숙한 운전자가 대형트럭을 모는 것과 같다. 필연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오너 경영의 장점으로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는다. 하지만 대주주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대형투자는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은 대부분 실패해 '승자의 저주'라는 딱지가 붙는다. 대대적 투자가 필요한 M&A가 실패하는 이유는 **총수의 독단적 결정**이 견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실패를 대주주가 책임지고 물러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임직원은 조금만 잘못해도 책임지고 회사를 떠나는 데 대주주는 어떤 잘못에서도 자유로운 영역에 속한다. 미국의 수조화 회사인 니콜라 사기로 의심되며 이에 투자한 국내 대기업의 주가도 추추고 있는 와중에 니콜라 투자를 주도한 약관의 3세 경영자는 **사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무한 혜택에 유한 책임이 대주주 경영자의 특권이다.

과연 이런 지배구조의 문제를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기업 3법'을 반대하는 논리는 예전과 변함없다. "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해 달라", "경영권 방어에 자금이 투입되면 투자를 못 한다", "코로나19가 득이나 힘든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더욱 옥죄는 규제를 남발하느냐"라는 주장만 무성하다. 대기업이 지배

구조 개혁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목소리는 전혀 없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무력화돼 대주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도 대기업 계열사나 거래기업이므로 감시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로펌과 관피아는 재벌의 울타리로 보호막 역할을 한다. 결국, 시장의 논리로 자유롭게 경영권의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투자자가 외국계 펀드인 것이다. '기업 3법'이 시행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 차익을 위해 경영권 안정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기적 자본이 파고드는 것은 **특별경영의 틈**을 노린 것이다. 글로벌 기업도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공격 대상이 된다.

이제 우리 기업의 역사가 50~60년에 이르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특별경영의 적폐가 누적돼 더는 방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들은 '기업 3법'이라는 규제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내부 병폐를 깊이 인식하고 더 큰 규제가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코로나19로 기업은 매우 어렵다. 소비 시장은 비대면 환경 및 국민소득 감소로 얼어붙어 있다. 고용시장도 청년취업이 막히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악화하고 있다.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정부는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을 옥죄는 새로운 세제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올바른 지 못한 말이다.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호응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배당하지 않았는데도 배당한 것처럼 간주하여 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내유보금' 혹은 '유보소득' 용어는 회계학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세법에서도 예전에 폐지된 용어임에도 이번에 다시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가 기업들이 금

창업·재투자 막는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

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여유 재원으로 오해된다면서,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 주주에 대한 배당을 유보하여 기업의 재투자 원천이 되는 자본이라는 의미에서 '세후 재투자 자본'이라는 대체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는 '세후 재투자 자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개인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말하고, 과세되는 간주배당세는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에 보유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적정유보소득은 배당가능금액(유보소득+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에 50%를 곱한 금액과 자본금에 1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신설되는 간주배당세는 2021년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며, 매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간주배당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개인 주주로부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간주배당소득은 향후 개인주주에게 실제

로 배당할 때 또다시 배당소득으로 산입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번 세제를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를 위해 신설했다고 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이 소득세 세율보다 높아서, 법인이 배당하지 않고 법인 내에 쌓아두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세금 납부를 유보하게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유보소득'은 주주가 배당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돈을 빼가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재투자에 사용하는 '착한 돈'이다. 이 돈을 배당한 것처럼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투자금을 회수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환경을 맞았는데 오히려 투자를 옥죄는 불합리한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벤처)을 창업할 때는 소규모 투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가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다 보면, 공동투자자를 모집하지 못

해 주식지분율이 80%가 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49.3%에 달한다. 현행 상법에 의하면 '1인 주식회사'로 창업도 가능하다. 이런 법인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나중에 성공해 규모를 늘려가며 성공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산업자금으로 이미 투자된 '세후 재투자 자본'인 유보소득에 간주배당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외 유출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외국에서도 비업무용 재산 등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조세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번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는 기업의 벤처 창업 및 재투자를 옥죄는 세제라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아나톨 프랑스 명언**
"교육은 암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다. 교육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

프랑스 작가. 서적상 아들이었던 그는 고담파의 영향을 받은 '황금 시집'으로 등단했다. 장편 '실베스트르 보나르의 죄' '타이스(Thais)' '붉은 백합' 등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1921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44~1924.

☆ **고사성어 / 한우충동(汗牛充棟)**
수레에 실어 끌면 마소가 땀을 흘리고 쌓아 올리면 들보에 닿을 만하다는 말. 당(唐)의 문장가 유충원(柳宗元)의 육문통 선생묘표(陸文通先生墓表)에서 유래했다.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지은 지 천오백 년이 된다. 춘추전을 지은 다섯 사람 중 지금 셋이 통용되고 있다. 온갖 주석(註釋)을 하는 학자들이 백 명, 천 명으로 지은 책을 집에 두면 대들보까지 짝 차고, 밖으로 내보내면 소와 말이 땀을 낸다."

☆ **시사상식 / 보어아웃(boreout)**
직장생활의 지루함과 단조로운 업무 때문에 겪는 의욕 상실을 뜻한다. 반복적인 업무나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비전 없는 업무 등을 지속하다 지루함과 회의감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는 보어아웃(burnout)의 반대말.

☆ **우리말 유래 / 곱창**
'곱+창자'. 곱은 '기름'. 곱창은 기름이 많은 창자라는 뜻이다.

☆ **유머 / 정치인의 속성**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까지 소문난 점쟁이를 보러 한국에 왔다. 옹한 점쟁이를 은밀히 만난 그가 "이번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점쟁이가 쌀 한 줌을 뿌리더니 "힘들겠어"라며 고개를 저었다. 초조해진 그가 한 말.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가져온 미국 쌀로 다시 해봐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종화 부동산부/pbell@

서민에게는 현금도 분양권도 관사도 없다

여당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5%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후 전세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전셋집이 씨가 말랐고 어쩌다 나온 물건도 부르는 게 값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

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게 된다"고 했다. 부총리 자신이 마주친 상황이다. 누굴 탓하겠나. 임대차 3법을 공포한 국무회의장엔 홍 부총리도 앉아 있었다.

그래도 부총리는 사정이 낫다. 홍 부총

리는 8월 경기 의왕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팔았다. 그 돈을 전세금과 합하면 웬만한 곳에선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그에게 내년 입주하는 세종 아파트 분양권도 있다. 전셋집을 못 구해도 관사(官舍)에 묵으면 된다.

서민은? 부총리만큼 현금이 있다면 애초 전세난민이 안 됐을 테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해도 그 전까진 전셋집을 찾아야 하고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관사는 있을 리 없다.

전셋집 상황이 알려지자 홍 부총리는 야당 의원까지 "(집 구하기가) 잘되길 바란다"고 염려받는 딱한 사람이 됐다. 부총리도 현금도, 분양권도, 관사도 없는 서민을 염려하길 바란다.

확증편향과 포털의 책임

지난달 만난 이광형 카이스트 교학부총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세상이 확증편향을 키워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대면이 일상화할 경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슬픈 일이다. 이 교수는 국내만 보더라도 태극기를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 조국 전 장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한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마이클 퓨즈라는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로켓을 타고 비행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평평한 지구 학회 회원은 무려 1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확증편향이 고집과 아집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목격한다. 필자의 생각엔 서울사랑교회 목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런 분류다.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사회가 건강할 리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확증편향을 더욱 키울 것이라 미래학자의 경고에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감기처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비대면 확산으로 인한 확증편향 가능성은 볼 보듯 뻔하다.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여러 곳이 있다면 다행이다. 문제는 국민이 대다수 정보를 얻는 곳, 즉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데스크칼럼

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시사N의 '2020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유튜브와 네이버가 꼽혔다. 하지만 유튜브엔 가짜뉴스들이 넘쳐난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이 8일 만 4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문해력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가 '가짜뉴스를 봤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가짜뉴스의 출처로 유튜브(51.8%)를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다. 이들은 '어떤 미디어에 잘못된 뉴스가 많다고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유튜브에 이어 지인이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14.6%)를 지목했다.

네이버는 어떠한가? 이달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바꿨다고 보고 네이버쇼핑 사업 부문에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다. 국내 1위 포털 사업자 네이버의 위상을 고려하면 알고리즘 개편이 결국 네이버쇼핑 서비스의 점유율 급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달 8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네이버의 위법 행위를 일제히 질타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알고리즘 조작이 뉴스 등 다른 분

야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네이버는 '조작은 없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스편집과 관련해선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100%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네이버 등 포털을 비롯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들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이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콘텐츠와 광고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개인의 행동 패턴과 사고에 맞는 뉴스와 정보들만 제공하는 이러한 공룡 기업들에 우리는 어느새 세뇌되어 있다. 아니 이들 공룡기업이 소비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 세뇌해 놓은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확산 이전부터 이들 기업으로 인해 확증편향이 더욱 확대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코로나19가 그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긴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최근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쇼셜딜레마'를 보면 확신을 갖게 된다.

확증편향은 사회 불안을 넘어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커진 갈등은 어느 지점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다. 확증편향을 깨기 위한 개인 스스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등 거대 공룡 기업들의 자성 노력 역시 절실하다. 돈을 벌기 위해 고객을 오랜 시간 동안 잡기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에만 몰두해선 사회 불안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che@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 담아선 안된다

경제계가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제단체 공동대응을 통해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에도 공동성명을 내고 법안처리 재고를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15일 민주연구원과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공론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법안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 방침은 완강하다. 6일 경총과 간담회를 가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경제계의 법안 처리를 미뤄달라는 요구에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는 할 만큼 했다"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과 한 묶음으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공정경제 3법에 경제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을 골자

로 한 상법·공정법 개정안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의결권 제한에 가장 큰 거부감을 나타낸다. 경영의 핵심인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을 어렵게 하고, 결국 투기펀드 등 회사 밖 세력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소지가 커진다는 점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惡法)이라는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쏟아부어야 한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손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규제 환경에서는 기업가정신도 발붙이기 힘들다.

경제계는 그동안에도 이들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역기능을 수없이 지적해왔다. 어느 때보다 벼랑 끝에 몰린 위기감이 큰 까닭이다. 여당은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3% 룰'의 조정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기업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경영 환경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나라 경제는 뒷걸음치고 있다. 기업들이 공정경제 3법을 그토록 한목소리로 반대하는데도 정부·여당은 그저 '엄살'로만 치부하는 분위기다. 한번쯤이라도 기업들의 위기를 헤아리고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송영록의 이슈노트

산업부 차장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공정경제 3법의 취지는 재벌의 황제 경영을 감시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기업인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의 창의력이 살아나고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전시(戰時) 상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다.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의 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일반 주주는 '당사자 지분 3%'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인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도 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만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기관투자자들의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회사를 설립한 후 꾸준히 경영권 위협을 받는다면 누가 창업에 나서려고 할까.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나올 수 있을까.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이 아

니라 중견·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제 혹은 경영권 위협에 더 잘 노출된다. 경총이 7일 개최한 긴급회의에도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또 다른 쪽에선 이들을 옥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진정으로 기업을 위하고, 나라 경제를 위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칭해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정치권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민주당이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14일과 15일 잇따라 재계 단체 등을 만나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한다. 정해진 답을 내놓기보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대승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syr@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19 재확산 후 고용 타격 얼마나

이번 주에는 8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의 고용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고용 관련 주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우선 고용부가 12일(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이 조사에선 전달의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지급 현황을 볼 수 있다. 8월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56억 원)보다 3718억 원(51.2%)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7월(1조1885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5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1조 원을 웃돌았다.

이어 16일(금)엔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앞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6000명 늘어난 86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이후 최고치였다. 8월 고용동향은 8월 9~15일 조사 결과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고용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고용동향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여파가 반영될 전망이다. 고용 지표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진단과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KDI는 지난달 9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가 재차 확산하며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3·7월 5개월간 '경기위축' 진단을 내렸다가 8월에 이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경기위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에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포함된다. IMF는 6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9%, 한국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6일 "2분기와 3분기 상황은 애초 예상보다 약간 더 좋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성장을 상향할 시사한 바 있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신혼테리어를 완성하는 삼성 신혼가전과 함께 당신은 **예쁘게만 사세요**



|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디자인 TV **The Serif**

| 인테리어에 맞춰 컬러도,
소재도 원하는대로 **BESPOKE**

| 거실에 가구처럼
잘 어울리는 디자인 **무풍에어컨**

디자인이 고민되는 당신의 마음을 잘 아니까

우리의 첫 가전
삼성 신혼가전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